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19호 【루게 제 24532호】 주제 103 (2014)년 4월 29일 (화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쿠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인  
쿠바공화국 내각 수상이 축전을 보내어왔다

평양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 김정은동지께

존경하는 동지  
나는 당신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변함없이 추대되신것과 관련하여 당신께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당신께 형제적인사를 드립니다.

쿠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  
쿠바공화국 내각 수상

라울 카스트로 루스

2014년 4월 24일

아바나

##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23일부터 26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김정은령도자께서 조선인민군 제851군부대관하 녀성방사포병부대 포사격훈련을 인도하셨다고 보도하고 있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포사격에 참가하고, 멋있게 들어맞는다고, 녀성방사포병들이 정말 용감하고 하시며 만족을 표시하시었다.

하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그이께서는 방사포병중대들이 현재 차지한 전지에서 불의에 기동할대 한 명령을 주시었다. 명령에 따라 방사포병부대들은 김정은령도자께서 정해주시 사격순차와 방비대로 사격을 개시하여 목표를 명중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포사격을 잘 한다고, 멋있게 들어맞는다고, 녀성방사포병들이 정말 용감하고 하시며 만족을 표시하시었다.

중국보도사, 중국의 중앙TV방송, 홍콩 부황위성TV방송, 홍콩 대공보, 인터넷홈페이지들인 동북망, 길림망, 등

북보도망, 로씨야의 이따르-파스통신, 《로씨야의 소리》방송, 엔매웨TV방송, 마야크방송, 인터넷통신들인 로스발트, 가제다, 루, 인터넷잡지 노바야 펠리짜까도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중국의 《길림신문》, 배루신문 《엘페데르세오》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제1차 비행사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모범보안단의 축하공연을 관람하신 소식을 게재하였다.

출판도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활동을 담은 사진문헌들과 동영상상을 모시었다.

본사기자

## 혁명적도덕이리의 숭고한 세계가 빛나는 력사적문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다》를

세계적범위에서 연구보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다》는 그이께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종합체계화하고 수령영생위업의 빛나는 귀감을 창조하신것으로 하여 세계 진보적인민들속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지난 2년동안에 수많은 나라와 국제 및 지역구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고전적로작을 광범히 소개 선전하고 출판보급하였다.

중국의 신화통신, 라오스통신, 기네 국내방송, 캄보디아신문 《인민》, 방글라데시신문 《발리프》, 네덜란드신문 《에르프》, 민주중고신문 《라브니르》, 도이힐란트신문 《로데 파데》를 비롯한 각국의 통신, 방송, 신문들과 로씨야의 모스크바로동자동맹, 페라루세공산주의근로자당, 로모니아사우주의당, 영국신군정지연구회, 스위스주체사상연구소, 에파드르 김정일도서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현대성 브라질위원회, 배루조선선문화협회, 조선과의 친선협회,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지역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연구회 국제연락장에 40여개 정당, 단체, 국제 및 지역구들의 인터넷홈페이지들이 로작을 전문 또는 요지로 전하였다.

로씨야신문 《베르디오》, 중국의 홍콩 부황위성TV방송, 몽골신문 《조니 메메》, 이란신문 《이란 뉴스》, 인도네시아신문 《더 퀵스트 타임스》,

에티오피아신문 《데일리 모니터》, 우루과이신문 《라 후베르투》와 스페인의 세 유고슬라비아공산당, 나이지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우크라이나 《신군의 보검》 주체사상연구협회 인터넷홈페이지를 비롯한 출판도물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진문헌들을 모시었다.

중국 단둥통신내쇄공장, 로씨야 하바롭스크지방출판사, 이란 하디안출판사, 도이힐란트 카누트출판사, 로모니아 비블리오스파르출판사, 케스프 베르트 호르트출판사, 스위스 바글라데시출판사, 기르키즈스탄 의브슈-아타출판사, 나이지리아 에누구에 있는 엔. 케이. 출판사, 에리트레아 스출판사, 메히꼬로동당출판사, 페루 그라피카 아오파 노스출판사, 베네수엘라 갈라파라출판사, 도미니카 마메리알 그리스출판사 등 출판기관들에서는 로작을 단행본으로 출판하고 발행식을 의의있게 하였다.

인도네시아 허가다하인쇄 및 출판사는 로작단행본의 머리글에 김정은각하의 로작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다》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령도자의 혁명생애와 업적을 집대성한 불멸의 총서로서 세계평화를 위하여 투쟁하는 진보적인민에게 커다란 힘을 안겨주었다고 썼다.

인도네시아 인디아 엔드 월드 이벤트

신문사 주필은 발행식에서 참으로 로작의 구절구절에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령도자에 대한 찬양은 그리움과 경도의 정이 뜨겁게 넘쳐흐르고 있다. 위대한 정치가, 강철의 령장이시며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각하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고 연설하였다.

몽골 자주적발전을 위한 배두산협회 위원장은 로작을 발행하면서 주체사상선봉자들이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시고 김정일령도자께서 발전케 하시킨 주체사상에 대하여,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속완성해 나가시려는 김정은각하의 확고부동한 의지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될것이라는 기대를 표시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작연구보급사업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광범히 벌어졌다.

인디아, 스위스, 이탈리아, 체코, 페루, 메히꼬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진행된 토론회, 해설모임, 독민들과 사회주의자들 사이의 담화 등 행사들에서 각계 인사들이 김정은동지께서 로작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다》를 발표하신것을 수평영생위업실현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신 력사적문헌이라고 하면서 그이의 한없이 바빠가며 투쟁하고 계신 김정은동지께서 세계사회의 도덕리심을 열렬히 칭송하였다.

한편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작의

깊은 뜻에 감동된 여러 나라 정당, 단체들과 각계 인사들은 성명, 담화 등을 발표하였다.

조선인민과의 친선문화대성애 파도르 파란타협회는 성명에서 로작은 혁명적도덕이리의 숭고한 세계가 빛나는 력사적문헌이다. 또한 제국주의자들의 전횡을 물리치고 사회주의의 위업, 인류자주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혁명의 수명을 어떻게 받들어모셔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강령적지침이라고 찬양하였다.

영국주체사상연구소 조 스톱 온 트랜트지부는 로작은 김정은동지께서 야말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동지의 혁명위업실현을 위해 헌신하시며 세계자주화위업과 사회주의위업을 위한 기대를 표시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작연구보급사업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광범히 벌어졌다.

인디아, 스위스, 이탈리아, 체코, 페루, 메히꼬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진행된 토론회, 해설모임, 독민들과 사회주의자들 사이의 담화 등 행사들에서 각계 인사들이 김정은동지께서 로작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다》를 발표하신것을 수평영생위업실현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신 력사적문헌이라고 하면서 그이의 한없이 바빠가며 투쟁하고 계신 김정은동지께서 세계사회의 도덕리심을 열렬히 칭송하였다.

한편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작의

##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자

### 대발파를 련속 들이대며 기세 좋게 전진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청천강계탄성발전소건설과 새로운 축산기건설, 고산과수농장건설, 간석지건설, 황해남도들길공사물, 한강중요대상건설을 다그쳐 제기일에 완공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지난 4월 18일 비약의 불바람이 세차게 일고있는 흥건도간석지건설장에서 25만산대발파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흥건도간석지건설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안산지구에서 25만산대발파를 성과적으로 진행함으로써 3호제방성토공사를 더욱 힘있게 다그칠수 있는 확고한 전방을 열어놓았다.

흥건도간석지건설을 위한 돌격전의 앞장에서 돌파구를 열어온 련합기업소의 최영덕, 강철영, 서

원길동무들 비롯한 일군들은 정초부터 3호제방성토공사를 다그치기 위한 전투목표를 높이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었다.

련합기업소의 일군들은 안산지구의 돌격은 전투현장에 자주 나가 전투원들의 가슴속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의 기본사상과 정신을 깊이 심어 주는 한편 25만산대발파를 성과적으로 보장하도록 적극 떠밀어주었다.

25만산대발파를 진행하기 위한 도청결정을 받은 다사, 보산간석지건설사업소의 전투원들은 《조선은 결심한다!》는 구호를 심장깊이 새기고 낮과 밤이 따로 없는 돌격전을 벌려 불과 보름 낫친 기간에 60여m의 도청결정을 전부 끝내는 자랑찬 혁신을 이룩하였다.

그리하여 안산지구에서는 련합기업소의 판심속에 25만산대발파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었으며 3호제방성토공

사를 앞당길수 있는 돌파구가 열렸다.

25만산대발파를 성과적으로 벌리면서 온 공사장에 집단적혁신과 비약의 불바람이 세차게 일어나도록 하고있다.

국가계획위원회, 국가계획위원회 일군들은 흥건도간석지건설을 함께 책임진 립장에서 필요한 자재들을 적극 보장해주는 한편 돌격은 간석지건설장에 뛰어들어 화선식정지사업을 힘있게 벌려 건설자들을 새로운 위훈창조로 떠밀어 주었다.

년초부터 대발파를 련속 들이대며 혁신의 한길로 힘차게 달려온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안산지구와 석화지구에서는 3호제방성토공사가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있으며 수십리 간석지제방이 날바다를 헤가며 힘차게 뻗어나가고있다.

특파기자 송창운

### 또 하나의 대규모남새온실건설 마감단계

평양시에서

평양시에서 또 하나의 규모가 큰 남새온실건설이 마감단계에서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시에서는 지난해 10여정량의 넓은 부지에 수백동의 현대적인 남새온실을 건설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 커다란 기쁨을 드리였다. 시에서는 이미 거둔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구역, 군들에서 남새온실건설을 힘있게 내미는 한편 지난해 완공한 온실과 같이 규모가 크고 현대적인 남새온실을 건설할 데담하고 용이 큰 목표를 세우고 이 사업을 힘있게 내밀고있다.

현재 시에서 건설하는 온실은 1단계공사가 끝나고 2단계공사도 마감단계에서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축산을 적극 발전시키고 온실남새와 버섯재배를 대대적으로 하여 더 많은 고기와 남새, 버섯이 인민들에게 차례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평양시당위원회에서는 남새온실을 더 많이 건설하여 수도시민들에게 사할 신선한 남새를 원만히 보장해줄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규모가 큰 남새온실을 또 하나 건설할 데담한

목표를 세웠다. 시당위원회에서는 짧은 기간에 큰 규모의 남새온실을 불이 번쩍 나게 건설할 구체적인 작전을 세우고 시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온실건설에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시당위원회의 적극적인 지도 밑에 시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하루빨리 현대적인 온실을 건설할 드높은 열의를 온 힘으로 발휘하여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건설지휘부에서는 건설에 떨쳐나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양심열 열의에 맞게 단계별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고 설계와 자재보장을 앞세우면서 시공지도를 짜고들었다.

건설을 책임진 시당위원회와 시농경리위원회 일군들은 전투조직과 지휘를 치밀하게 진행하면서 이신작업의 모범으로 대중을 힘있게 이끌어 나갔다. 커다란 성과를 이룩해나가고있다.

지대정리를 맡은 평양시농경리위원회, 시경찰소, 평양시상수도관리국을 비롯한 시급 단위들에서는 모든것이 불리한 조건에서도 치밀한 돌격전을 벌려 짧은 기간에 7만㎡의 방대한 토량을 처리하고 지대정리를 제기일에 끝내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토벽식온실건설을 맡은 평양시대동강건설관리국, 평양시지방건설관리국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한사람같이 떨쳐나 보름동안에 방대한 기초 굴착공사를 끝내고 기초공작리트치를 집적으로 해체해 공사의 돌파구를 열어놓았다. 이들은 한가지 일을 해도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도록 뜨거운 애국심을 발휘하여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공룡식온실건설을 맡은 중심구역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수도시민들의 남새문제 해결을 위해 그처럼 심려하시던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뜻을 실천으로 받들어 간다는 커다란 긍지를 안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관철에 창조적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다.

선교구역과 중구역, 평천구역이 제일 앞장에서 나가고있다.

선교구역당위원회에서는 능력있는 일군들을 건설장에 파견하고 구역이 달라붙어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우선적으로 풀이하면서 힘있게 정치사업으로 건설에 떨쳐나선 돌격대원들을 새로운 위훈창조로 불러일으켜 날마다 커다

란 성과를 거두었다. 중구역과 평천구역을 비롯한 여러 구역의 책임일군들도 늘 현지에 나와 결된 문제를 제때에 풀이하면서 이신작업의 모범으로 대중을 불러일으켜 새로운 건설속도를 창조해나가고있다.

시당위원회와 시농경리위원회 일군들은 건설속도가 높아 지는데 맞게 자재보장을 확고히 앞세워나가기 위한 치밀한 전투를 벌리고있다.

이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세인트와 혼석, 철근, 여러 규격의 관들과 양수설비들을 비롯한 수많은 자재와 설비들이 제때에 보장되어 공사는 일정대로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건설지휘부에서는 온실이 건설되면 즉시 남새농사를 시작할수 있도록 모든 온실들에 유기질비료, 질종은 거름들을 실어들이 지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도 동시에 내밀어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지금 건설지휘부에서는 1단계공사를 앞당겨 끝낸 관공사와 기본수로 및 굴포공사, 물막기와 양수장건설, 도로건설도 동시에 내밀어 날마다 건설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특파기자 최수복

## 수천정보의 과수원에 과일나무를 심었다

과수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

과수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올해 봄철에 우량품종의 과일나무를 심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성과를 거두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수천정보의 과수원에 키낮은사과나무와 배, 추리, 복숭아, 살구나무 등 갖가지 과일나무들을 심었다. 이 성과는 농촌지역의 모든 부문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심장에 새겨안은 과수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불같은 열정이 안아온 결실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나무심기는 적지적수의 원칙에서 하여야 합니다. 아무리 수종이 좋은 나무라도 나무의 생물학적특성에 따르는 기후조건과 토양조건이 보장되지 않으면 사물을 높일수 없고 제대로 자랄수도 없습니다.》

농업선의 과수부문 일군들은 올해 과일나무심기계획을 면밀하게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특히 각지 과수농장들을 과일생산의

과학화, 집약화, 현대화가 실현된 과수농장이 잘 꾸러기 될수 있도록 선차적인 힘을 넣으면서 적지적수의 원칙을 지켜 과일나무의 사물들을 높일도록 하였다.

각지의 과일나무모를 생산하는 농장들과 과수농장들에서 물질기술적토대를 든든히 갖추고 앞선 나무모생산방법을 받아들여 필요한 과일나무모들을 원만히 보장하였다.

고산과수농장에서 현대적인 과수원을 새로 조성하기 위한 전투를 힘있게 벌려 성과를 거두었다. 이꽃 일군들은 지난해 농장을 찾으면서 고산과수농장능력확장공사를 위한 장군년께서 정해주신 날자에 무조건 완공해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나무심기를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특히 보여주기 사업을 풀이하여 조직진행함으로써 분장, 작업반들의 기술일군들이 과수원조성에 제기되는 기술적지도를 실속있게 하도록 하였다. 부령지구 제 1, 2, 3, 4, 5작업반과 위북, 성북분장의 근로자들은 과일나무심기를

적지적수의 원칙에서 일정에 의해 내밀어 짧은 기간에 수천정보의 새 과수원을 조성하였다.

북청군의 과수농장일군들과 근로자들도 새 과수원조성전투의 앞장에 섰다.

봉흥, 종산, 라하, 문동과수농장을 비롯한 군의 과수농장들에서는 새로 조성할 과수원에 정모양 100이상의 질종은 거름을 실어넣기 기세로 보름동안에 40여만근의 사과, 배, 복숭아나무심기를 질적으로 끝내었다.

평양, 선덕, 황주, 구성, 장연, 삼천과수농장에서는 과일나무 구멍을 파놓고 거름을 듬뿍뿌려 주면서 준비를 착실히 해놓았다가 올해 봄철에 와달달 달라붙어 수천정보의 과수원을 조성하였다. 그리하여 각지 과수농장들에서만도 130여개 정보의 과수원에 우량품종의 갖가지 과일나무들을 심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각지의 협동농장들에서는 우량품종의 과일나무들을 심어 그 루바꿈을 진행하기 위한 전투를 힘있게 벌려왔다.

본사기자 함연옥



대규모로 들끓는 사회주의건설장들에 더 많은 강재를 보내주기 위해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천리마계강련합기업소에서-

# 혁명적사상공세의 본보기-청봉밀영에서의 사상전

경에 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에서 하신 강령적전설 《혁명적 사상공세로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자》를 받아안은 당사상일군들은 우렁찬 사상전의 포성으로 온 나라를 들끓게 하고있다.

우리 당사상일군들이 당의 의도대로 사상의 포문을 열고 집중포화, 편속포화, 명중포화를 틀어대어 온 나라에 사상적일쇄의 불길, 혁명적대고조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키자면 청봉밀영에서의 사상전을 귀중한 교과서로 삼고 투쟁해나가야 한다.

경에 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사상전선에 먼저 불을 지피고 사상사업의 화력을 강화하여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위한 우리 혁명의 진군속도를 비상히 높여나가야 합니다.》

혁명은 대중의 사상과 신념에 의거한 전진적당 당사상일군들이 혁명적 사상전지를 지켜선 기술, 창조병들이다. 당사상일군들이 대중을 당의 사상으로 무장시키고 그 관철에 힘있게 불어넣어 줄 때 그들의 혁명적역의가 비상히 앙양될 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놀라운 성과들이 이룩될 수 있다. 당사상일군들이 혁명적 사상공세로 찬반대중의 정신력을 총괄받지 못할 때 그 위력을 당할 힘은 세상에 없다.

오늘 미제를 비롯한 혁명의 원수들은 우리의 사회주의를 말살하려고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모략선전도 반동적사문화죄책도 동원하고 있다. 이러한 모략은 우리 인민을 당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원수들을 사상정신적으로 타도하자면 당사상일군들부터 투철한 사상론자가 되고 열혈의 전위투사가 되어야 한다.

그러자면 당사상일군들이 간고하고 시련에 찬 항일혁명전쟁시기에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대원들과 인민들에게 널리 선전하시었으며 수령님의 사상을

목숨으로 지켜싸우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숭고한 모범을 적극 따라배워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 백두산봉대를 잡고 투쟁의 길에 나서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어떤 어려운 조건에서도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기 위한 학습을 중단하지 않으셨다.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을 확고한 신념으로 지니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수령님의 사상과 로신을 대원들과 인민들에게 깊이있게 선전하는것을 가장 영예로운 사명으로 여기시고 소부대활동을 하시면서도, 지하공작을 하시면서도 언제나 주동적이며 적극적인 선전활동을 전개하시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로신, 방침을 철썬는자들에 대해서도 그가 누구이든 즉시에 비타협적인 투쟁을 벌리시였으며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지키기 위하여서는 한목숨 서슴없이 내주고 투쟁하시었다.

특히 항일혁명전쟁의 가장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시기에 김정숙동지께서 청봉밀영에서 보여주시신 숭고한 모범은 혁명적인 사상공세를 벌려나가는 우리 당사상일군들이 따라배워야 할 귀중한 본보기로 되고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혁명앞에 어려운 시련이 나설수록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기 위한 학습열풍을 일으키신것은 당사상일군들이 따라배워야 할 숭고한 귀감이다. 혁명앞에 어려운 시련이 막아지고 방대한 과업이 나설수록 더욱 세차게 일어나야 하는것이 학습열풍이다.

김정숙동지께서 청봉밀영에 도착하시었을 때는 항일혁명투쟁이 가장 어려운 시련을 겪던 때였다.

당시 좌경모험주의적 일화현정치의 후과로 항일연군부대들이 많은 손실을 당할조를 초조한 수령님의 백두산서남부일대에서 증강된 적의 대병력과 단적으로 맞서싸우지 않으면 안되였다. 국내에서는 해산군으로 하여 수많은 지하조직원들이

제외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기 위한 학습을 심화시켜나가기 김정숙동지의 숭고한 모범이야말로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열풍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 오늘의 총진군에서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할 귀중한 본보기이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확고히 체득하시고 수령님의 로선과 어긋나는 잡사들을 즉시에 가려내어 철칙을 엄광호의 폐배주의적인 책동으로 하여 예비병실도 없고 식량도 모자라는 등 난관들이 가로놓여있고 고난의 행군을 벌리고계시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이러한 곤난앞에서도 주저하지 않으시고 병실들을 깨우쳐 우리로 적극적인 환자치료대책을 세우시는 한편 대원들에게 남매자회의방침과 압록강연안으로 진출하는 주력부대의 전투노선을 알려주시고 그들의 정신상태를 일신시키시었다.

이후 김정숙동지께서는 군정학습을 통하여 밀영안의 대원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고자 하시면서, 저조한 분위기가 퍼지고있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이러한 곤난앞에서도 주저하지 않으시고 병실들을 깨우쳐 우리로 적극적인 환자치료대책을 세우시는 한편 대원들에게 남매자회의방침과 압록강연안으로 진출하는 주력부대의 전투노선을 알려주시고 그들의 정신상태를 일신시키시었다.

이후 김정숙동지께서는 군정학습을 통하여 밀영안의 대원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고자 하시면서, 저조한 분위기가 퍼지고있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이러한 곤난앞에서도 주저하지 않으시고 병실들을 깨우쳐 우리로 적극적인 환자치료대책을 세우시는 한편 대원들에게 남매자회의방침과 압록강연안으로 진출하는 주력부대의 전투노선을 알려주시고 그들의 정신상태를 일신시키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기 위한 학습을 심화시켜나가기 김정숙동지의 숭고한 모범이야말로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열풍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 오늘의 총진군에서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할 귀중한 본보기이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확고히 체득하시고 수령님의 로선과 어긋나는 잡사들을 즉시에 가려내어 철칙을 엄광호의 폐배주의적인 책동으로 하여 예비병실도 없고 식량도 모자라는 등 난관들이 가로놓여있고 고난의 행군을 벌리고계시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이러한 곤난앞에서도 주저하지 않으시고 병실들을 깨우쳐 우리로 적극적인 환자치료대책을 세우시는 한편 대원들에게 남매자회의방침과 압록강연안으로 진출하는 주력부대의 전투노선을 알려주시고 그들의 정신상태를 일신시키시었다.

이후 김정숙동지께서는 군정학습을 통하여 밀영안의 대원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고자 하시면서, 저조한 분위기가 퍼지고있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이러한 곤난앞에서도 주저하지 않으시고 병실들을 깨우쳐 우리로 적극적인 환자치료대책을 세우시는 한편 대원들에게 남매자회의방침과 압록강연안으로 진출하는 주력부대의 전투노선을 알려주시고 그들의 정신상태를 일신시키시었다.

가자면 당사상일군들이 령도자의 사상을 목숨으로 옹호하고 령도자의 구상을 한몸바쳐 꽃피우려는 투철한 신념을 지녀야 한다.

김정숙동지께서는 혁명앞에 가장 엄혹한 난관이 가로놓여있고 자신의 생사조차 가능하기 어려웠던 시기에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을 목숨으로 옹호하시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로신, 방침대로만 싸우면 혁명은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확고한 믿음을 간직하고계시었다. 바로 이런 신념이 있었기에 김정숙동지께서는 이른바 간첩단사건을 조차하고 내내원들에게까지 약속을 하고문을 틀어대던 엄광호와 정면으로 대결하여 싸우실수 있었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권위를 옹호하여 불사조가 되어 싸우시는 김정숙동지를 굴복시키질수 없다는것을 위듯게나마 깨달은 엄광호는 주력부대가 일제의 《도벌》에 다 빠져버리고 눈 속에서 얼어죽었다는 《소식》을 날조하면서 그 무는 《자백》을 강요하시었다.

하지만 김정숙동지께서는 혁명의 배신자로 전락된 그에게 《네놈이 그러구 목숨로 우리를 놀래게할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사명관동지께서는 건재해서 우리 혁명을 이끌고계신다. 우리 유격대원들과 전제 빈위기의 사명관동지를 목숨으로 보위하고있고 나의 령도정신을 음모로써 배신하는 시기는 현상, 당적, 계급적이익에서 탈선하여 우리 내부에 쉬를 쏠게 하는 요소들을 제에 간과하자면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어야 한다는것을 산모범으로 보아주고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목숨으로 지켜싸우신것은 혁명적사상공세의 앞장에 선 당사상일군들이 따라배워야 할 귀중한 모범이다.

혁명적사상공세를 힘있게 벌려나

를 폭로하는 심판장에서 이렇게 열변을 터치시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높은 정치적각성과 혁명적신념을 가지고 사명관동지의 혁명사상을 견결히 옹호하고수호하여 하며 그이의 혁명사상을 철썬는 현상에 대하여서는 날카로운 투쟁을 벌려야 합니다.》

사명관동지의 혁명사상을 목숨으로 지킵시다. 이것은 우리의 가장 숭고하고 영예로운 임무입니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신 김정숙동지의 심장에서 터져나올수 있는 웨침이었다.

당사상일군들은 바로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지니셨던 이 숭고한 품도를 다하지도 달지도 말고 그대로 따라배워야 한다.

그래야 우리 당의 사상사업원칙을 배고 죽는 진짜배기혁명가, 당의 목숨을 맡겨주기 위하여 어떤 시련도 헤쳐나가는 참다운 전위투사, 열백백을 메가마 당정책을 학습하고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열혈의 인간이 될수 있으며 혁명적사상공세를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다.

지금 미제를 비롯한 계급주의반동세력들은 우리 당의 유일사상을 신념으로 삼고 무당적인 애로와 난관을 용감하게 뚫고나가는 우리 인민의 핵부기보다 더 위력한 사상과 불굴의 신념을 허물어려고 반공화국공화당이다. 우리는 사명관동지를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시며 충성다할것을 맹세한 사람들이다. 살아도 죽어도 우리는 사명관동지를 드린 충성의 맹세를 영원히 저버리지 않을것이다. 이것을 꼭꼭히 알아두라.》고 불같이 호명하시었다.

이처럼 김정숙동지께서는 사명부대와 멀리 떨어져계시였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지켜 신념을 굽히지 않고 견결히 싸우시였으며 마침내는 승리가 되어 수령님의 품에 다시 안기시게 되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엄광호의 리명

《당사상전선에 먼저 불을 지피고 사상사업의 화력을 강화하여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위한 우리 혁명의 진군속도를 비상히 높여나가야 합니다.》

혁명은 대중의 사상과 신념에 의거한 전진적당 당사상일군들이 혁명적 사상전지를 지켜선 기술, 창조병들이다. 당사상일군들이 대중을 당의 사상으로 무장시키고 그 관철에 힘있게 불어넣어 줄 때 그들의 혁명적역의가 비상히 앙양될 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놀라운 성과들이 이룩될 수 있다. 당사상일군들이 혁명적 사상공세로 찬반대중의 정신력을 총괄받지 못할 때 그 위력을 당할 힘은 세상에 없다.

오늘 미제를 비롯한 혁명의 원수들은 우리의 사회주의를 말살하려고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모략선전도 반동적사문화죄책도 동원하고 있다. 이러한 모략은 우리 인민을 당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원수들을 사상정신적으로 타도하자면 당사상일군들부터 투철한 사상론자가 되고 열혈의 전위투사가 되어야 한다.

그러자면 당사상일군들이 간고하고 시련에 찬 항일혁명전쟁시기에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대원들과 인민들에게 널리 선전하시었으며 수령님의 사상을

목숨으로 지켜싸우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숭고한 모범을 적극 따라배워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 백두산봉대를 잡고 투쟁의 길에 나서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어떤 어려운 조건에서도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기 위한 학습을 중단하지 않으셨다.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을 확고한 신념으로 지니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수령님의 사상과 로신을 대원들과 인민들에게 깊이있게 선전하는것을 가장 영예로운 사명으로 여기시고 소부대활동을 하시면서도, 지하공작을 하시면서도 언제나 주동적이며 적극적인 선전활동을 전개하시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로신, 방침을 철썬는자들에 대해서도 그가 누구이든 즉시에 비타협적인 투쟁을 벌리시였으며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지키기 위하여서는 한목숨 서슴없이 내주고 투쟁하시었다.

특히 항일혁명전쟁의 가장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시기에 김정숙동지께서 청봉밀영에서 보여주시신 숭고한 모범은 혁명적인 사상공세를 벌려나가는 우리 당사상일군들이 따라배워야 할 귀중한 본보기로 되고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혁명앞에 어려운 시련이 나설수록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기 위한 학습열풍을 일으키신것은 당사상일군들이 따라배워야 할 숭고한 귀감이다. 혁명앞에 어려운 시련이 막아지고 방대한 과업이 나설수록 더욱 세차게 일어나야 하는것이 학습열풍이다.

김정숙동지께서 청봉밀영에 도착하시었을 때는 항일혁명투쟁이 가장 어려운 시련을 겪던 때였다.

당시 좌경모험주의적 일화현정치의 후과로 항일연군부대들이 많은 손실을 당할조를 초조한 수령님의 백두산서남부일대에서 증강된 적의 대병력과 단적으로 맞서싸우지 않으면 안되였다. 국내에서는 해산군으로 하여 수많은 지하조직원들이

제외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기 위한 학습을 심화시켜나가기 김정숙동지의 숭고한 모범이야말로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열풍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 오늘의 총진군에서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할 귀중한 본보기이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확고히 체득하시고 수령님의 로선과 어긋나는 잡사들을 즉시에 가려내어 철칙을 엄광호의 폐배주의적인 책동으로 하여 예비병실도 없고 식량도 모자라는 등 난관들이 가로놓여있고 고난의 행군을 벌리고계시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이러한 곤난앞에서도 주저하지 않으시고 병실들을 깨우쳐 우리로 적극적인 환자치료대책을 세우시는 한편 대원들에게 남매자회의방침과 압록강연안으로 진출하는 주력부대의 전투노선을 알려주시고 그들의 정신상태를 일신시키시었다.

이후 김정숙동지께서는 군정학습을 통하여 밀영안의 대원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고자 하시면서, 저조한 분위기가 퍼지고있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이러한 곤난앞에서도 주저하지 않으시고 병실들을 깨우쳐 우리로 적극적인 환자치료대책을 세우시는 한편 대원들에게 남매자회의방침과 압록강연안으로 진출하는 주력부대의 전투노선을 알려주시고 그들의 정신상태를 일신시키시었다.

이후 김정숙동지께서는 군정학습을 통하여 밀영안의 대원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고자 하시면서, 저조한 분위기가 퍼지고있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이러한 곤난앞에서도 주저하지 않으시고 병실들을 깨우쳐 우리로 적극적인 환자치료대책을 세우시는 한편 대원들에게 남매자회의방침과 압록강연안으로 진출하는 주력부대의 전투노선을 알려주시고 그들의 정신상태를 일신시키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기 위한 학습을 심화시켜나가기 김정숙동지의 숭고한 모범이야말로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열풍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 오늘의 총진군에서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할 귀중한 본보기이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확고히 체득하시고 수령님의 로선과 어긋나는 잡사들을 즉시에 가려내어 철칙을 엄광호의 폐배주의적인 책동으로 하여 예비병실도 없고 식량도 모자라는 등 난관들이 가로놓여있고 고난의 행군을 벌리고계시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이러한 곤난앞에서도 주저하지 않으시고 병실들을 깨우쳐 우리로 적극적인 환자치료대책을 세우시는 한편 대원들에게 남매자회의방침과 압록강연안으로 진출하는 주력부대의 전투노선을 알려주시고 그들의 정신상태를 일신시키시었다.

이후 김정숙동지께서는 군정학습을 통하여 밀영안의 대원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고자 하시면서, 저조한 분위기가 퍼지고있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이러한 곤난앞에서도 주저하지 않으시고 병실들을 깨우쳐 우리로 적극적인 환자치료대책을 세우시는 한편 대원들에게 남매자회의방침과 압록강연안으로 진출하는 주력부대의 전투노선을 알려주시고 그들의 정신상태를 일신시키시었다.

가자면 당사상일군들이 령도자의 사상을 목숨으로 옹호하고 령도자의 구상을 한몸바쳐 꽃피우려는 투철한 신념을 지녀야 한다.

김정숙동지께서는 혁명앞에 가장 엄혹한 난관이 가로놓여있고 자신의 생사조차 가능하기 어려웠던 시기에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을 목숨으로 옹호하시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로신, 방침대로만 싸우면 혁명은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확고한 믿음을 간직하고계시었다. 바로 이런 신념이 있었기에 김정숙동지께서는 이른바 간첩단사건을 조차하고 내내원들에게까지 약속을 하고문을 틀어대던 엄광호와 정면으로 대결하여 싸우실수 있었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권위를 옹호하여 불사조가 되어 싸우시는 김정숙동지를 굴복시키질수 없다는것을 위듯게나마 깨달은 엄광호는 주력부대가 일제의 《도벌》에 다 빠져버리고 눈 속에서 얼어죽었다는 《소식》을 날조하면서 그 무는 《자백》을 강요하시었다.

하지만 김정숙동지께서는 혁명의 배신자로 전락된 그에게 《네놈이 그러구 목숨로 우리를 놀래게할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사명관동지께서는 건재해서 우리 혁명을 이끌고계신다. 우리 유격대원들과 전제 빈위기의 사명관동지를 목숨으로 보위하고있고 나의 령도정신을 음모로써 배신하는 시기는 현상, 당적, 계급적이익에서 탈선하여 우리 내부에 쉬를 쏠게 하는 요소들을 제에 간과하자면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어야 한다는것을 산모범으로 보아주고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목숨으로 지켜싸우신것은 혁명적사상공세의 앞장에 선 당사상일군들이 따라배워야 할 귀중한 모범이다.

혁명적사상공세를 힘있게 벌려나

를 폭로하는 심판장에서 이렇게 열변을 터치시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높은 정치적각성과 혁명적신념을 가지고 사명관동지의 혁명사상을 견결히 옹호하고수호하여 하며 그이의 혁명사상을 철썬는 현상에 대하여서는 날카로운 투쟁을 벌려야 합니다.》

사명관동지의 혁명사상을 목숨으로 지킵시다. 이것은 우리의 가장 숭고하고 영예로운 임무입니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신 김정숙동지의 심장에서 터져나올수 있는 웨침이었다.

당사상일군들은 바로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지니셨던 이 숭고한 품도를 다하지도 달지도 말고 그대로 따라배워야 한다.

그래야 우리 당의 사상사업원칙을 배고 죽는 진짜배기혁명가, 당의 목숨을 맡겨주기 위하여 어떤 시련도 헤쳐나가는 참다운 전위투사, 열백백을 메가마 당정책을 학습하고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열혈의 인간이 될수 있으며 혁명적사상공세를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다.

지금 미제를 비롯한 계급주의반동세력들은 우리 당의 유일사상을 신념으로 삼고 무당적인 애로와 난관을 용감하게 뚫고나가는 우리 인민의 핵부기보다 더 위력한 사상과 불굴의 신념을 허물어려고 반공화국공화당이다. 우리는 사명관동지를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시며 충성다할것을 맹세한 사람들이다. 살아도 죽어도 우리는 사명관동지를 드린 충성의 맹세를 영원히 저버리지 않을것이다. 이것을 꼭꼭히 알아두라.》고 불같이 호명하시었다.

이처럼 김정숙동지께서는 사명부대와 멀리 떨어져계시였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지켜 신념을 굽히지 않고 견결히 싸우시였으며 마침내는 승리가 되어 수령님의 품에 다시 안기시게 되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엄광호의 리명

가자면 당사상일군들이 령도자의 사상을 목숨으로 옹호하고 령도자의 구상을 한몸바쳐 꽃피우려는 투철한 신념을 지녀야 한다.

김정숙동지께서는 혁명앞에 가장 엄혹한 난관이 가로놓여있고 자신의 생사조차 가능하기 어려웠던 시기에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을 목숨으로 옹호하시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로신, 방침대로만 싸우면 혁명은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확고한 믿음을 간직하고계시었다. 바로 이런 신념이 있었기에 김정숙동지께서는 이른바 간첩단사건을 조차하고 내내원들에게까지 약속을 하고문을 틀어대던 엄광호와 정면으로 대결하여 싸우실수 있었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권위를 옹호하여 불사조가 되어 싸우시는 김정숙동지를 굴복시키질수 없다는것을 위듯게나마 깨달은 엄광호는 주력부대가 일제의 《도벌》에 다 빠져버리고 눈 속에서 얼어죽었다는 《소식》을 날조하면서 그 무는 《자백》을 강요하시었다.

하지만 김정숙동지께서는 혁명의 배신자로 전락된 그에게 《네놈이 그러구 목숨로 우리를 놀래게할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사명관동지께서는 건재해서 우리 혁명을 이끌고계신다. 우리 유격대원들과 전제 빈위기의 사명관동지를 목숨으로 보위하고있고 나의 령도정신을 음모로써 배신하는 시기는 현상, 당적, 계급적이익에서 탈선하여 우리 내부에 쉬를 쏠게 하는 요소들을 제에 간과하자면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어야 한다는것을 산모범으로 보아주고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목숨으로 지켜싸우신것은 혁명적사상공세의 앞장에 선 당사상일군들이 따라배워야 할 귀중한 모범이다.

혁명적사상공세를 힘있게 벌려나

《당사상전선에 먼저 불을 지피고 사상사업의 화력을 강화하여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위한 우리 혁명의 진군속도를 비상히 높여나가야 합니다.》

혁명은 대중의 사상과 신념에 의거한 전진적당 당사상일군들이 혁명적 사상전지를 지켜선 기술, 창조병들이다. 당사상일군들이 대중을 당의 사상으로 무장시키고 그 관철에 힘있게 불어넣어 줄 때 그들의 혁명적역의가 비상히 앙양될 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놀라운 성과들이 이룩될 수 있다. 당사상일군들이 혁명적 사상공세로 찬반대중의 정신력을 총괄받지 못할 때 그 위력을 당할 힘은 세상에 없다.

오늘 미제를 비롯한 혁명의 원수들은 우리의 사회주의를 말살하려고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모략선전도 반동적사문화죄책도 동원하고 있다. 이러한 모략은 우리 인민을 당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원수들을 사상정신적으로 타도하자면 당사상일군들부터 투철한 사상론자가 되고 열혈의 전위투사가 되어야 한다.

그러자면 당사상일군들이 간고하고 시련에 찬 항일혁명전쟁시기에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대원들과 인민들에게 널리 선전하시었으며 수령님의 사상을

목숨으로 지켜싸우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숭고한 모범을 적극 따라배워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 백두산봉대를 잡고 투쟁의 길에 나서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어떤 어려운 조건에서도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기 위한 학습을 중단하지 않으셨다.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을 확고한 신념으로 지니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수령님의 사상과 로신을 대원들과 인민들에게 깊이있게 선전하는것을 가장 영예로운 사명으로 여기시고 소부대활동을 하시면서도, 지하공작을 하시면서도 언제나 주동적이며 적극적인 선전활동을 전개하시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로신, 방침을 철썬는자들에 대해서도 그가 누구이든 즉시에 비타협적인 투쟁을 벌리시였으며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지키기 위하여서는 한목숨 서슴없이 내주고 투쟁하시었다.

특히 항일혁명전쟁의 가장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시기에 김정숙동지께서 청봉밀영에서 보여주시신 숭고한 모범은 혁명적인 사상공세를 벌려나가는 우리 당사상일군들이 따라배워야 할 귀중한 본보기로 되고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혁명앞에 어려운 시련이 나설수록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기 위한 학습열풍을 일으키신것은 당사상일군들이 따라배워야 할 숭고한 귀감이다. 혁명앞에 어려운 시련이 막아지고 방대한 과업이 나설수록 더욱 세차게 일어나야 하는것이 학습열풍이다.

김정숙동지께서 청봉밀영에 도착하시었을 때는 항일혁명투쟁이 가장 어려운 시련을 겪던 때였다.

당시 좌경모험주의적 일화현정치의 후과로 항일연군부대들이 많은 손실을 당할조를 초조한 수령님의 백두산서남부일대에서 증강된 적의 대병력과 단적으로 맞서싸우지 않으면 안되였다. 국내에서는 해산군으로 하여 수많은 지하조직원들이

제외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기 위한 학습을 심화시켜나가기 김정숙동지의 숭고한 모범이야말로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열풍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 오늘의 총진군에서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할 귀중한 본보기이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확고히 체득하시고 수령님의 로선과 어긋나는 잡사들을 즉시에 가려내어 철칙을 엄광호의 폐배주의적인 책동으로 하여 예비병실도 없고 식량도 모자라는 등 난관들이 가로놓여있고 고난의 행군을 벌리고계시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이러한 곤난앞에서도 주저하지 않으시고 병실들을 깨우쳐 우리로 적극적인 환자치료대책을 세우시는 한편 대원들에게 남매자회의방침과 압록강연안으로 진출하는 주력부대의 전투노선을 알려주시고 그들의 정신상태를 일신시키시었다.

이후 김정숙동지께서는 군정학습을 통하여 밀영안의 대원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고자 하시면서, 저조한 분위기가 퍼지고있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이러한 곤난앞에서도 주저하지 않으시고 병실들을 깨우쳐 우리로 적극적인 환자치료대책을 세우시는 한편 대원들에게 남매자회의방침과 압록강연안으로 진출하는 주력부대의 전투노선을 알려주시고 그들의 정신상태를 일신시키시었다.

이후 김정숙동지께서는 군정학습을 통하여 밀영안의 대원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고자 하시면서, 저조한 분위기가 퍼지고있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이러한 곤난앞에서도 주저하지 않으시고 병실들을 깨우쳐 우리로 적극적인 환자치료대책을 세우시는 한편 대원들에게 남매자회의방침과 압록강연안으로 진출하는 주력부대의 전투노선을 알려주시고 그들의 정신상태를 일신시키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기 위한 학습을 심화시켜나가기 김정숙동지의 숭고한 모범이야말로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열풍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 오늘의 총진군에서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할 귀중한 본보기이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확고히 체득하시고 수령님의 로선과 어긋나는 잡사들을 즉시에 가려내어 철칙을 엄광호의 폐배주의적인 책동으로 하여 예비병실도 없고 식량도 모자라는 등 난관들이 가로놓여있고 고난의 행군을 벌리고계시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이러한 곤난앞에서도 주저하지 않으시고 병실들을 깨우쳐 우리로 적극적인 환자치료대책을 세우시는 한편 대원들에게 남매자회의방침과 압록강연안으로 진출하는 주력부대의 전투노선을 알려주시고 그들의 정신상태를 일신시키시었다.

이후 김정숙동지께서는 군정학습을 통하여 밀영안의 대원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고자 하시면서, 저조한 분위기가 퍼지고있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이러한 곤난앞에서도 주저하지 않으시고 병실들을 깨우쳐 우리로 적극적인 환자치료대책을 세우시는 한편 대원들에게 남매자회의방침과 압록강연안으로 진출하는 주력부대의 전투노선을 알려주시고 그들의 정신상태를 일신시키시었다.

가자면 당사상일군들이 령도자의 사상을 목숨으로 옹호하고 령도자의 구상을 한몸바쳐 꽃피우려는 투철한 신념을 지녀야 한다.

김정숙동지께서는 혁명앞에 가장 엄혹한 난관이 가로놓여있고 자신의 생사조차 가능하기 어려웠던 시기에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을 목숨으로 옹호하시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로신, 방침대로만 싸우면 혁명은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확고한 믿음을 간직하고계시었다. 바로 이런 신념이 있었기에 김정숙동지께서는 이른바 간첩단사건을 조차하고 내내원들에게까지 약속을 하고문을 틀어대던 엄광호와 정면으로 대결하여 싸우실수 있었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권위를 옹호하여 불사조가 되어 싸우시는 김정숙동지를 굴복시키질수 없다는것을 위듯게나마 깨달은 엄광호는 주력부대가 일제의 《도벌》에 다 빠져버리고 눈 속에서 얼어죽었다는 《소식》을 날조하면서 그 무는 《자백》을 강요하시었다.

하지만 김정숙동지께서는 혁명의 배신자로 전락된 그에게 《네놈이 그러구 목숨로 우리를 놀래게할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사명관동지께서는 건재해서 우리 혁명을 이끌고계신다. 우리 유격대원들과 전제 빈위기의 사명관동지를 목숨으로 보위하고있고 나의 령도정신을 음모로써 배신하는 시기는 현상, 당적, 계급적이익에서 탈선하여 우리 내부에 쉬를 쏠게 하는 요소들을 제에 간과하자면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어야 한다는것을 산모범으로 보아주고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목숨으로 지켜싸우신것은 혁명적사상공세의 앞장에 선 당사상일군들이 따라배워야 할 귀중한 모범이다.

혁명적사상공세를 힘있게 벌려나

를 폭로하는 심판장에서 이렇게 열변을 터치시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높은 정치적각성과 혁명적신념을 가지고 사명관동지의 혁명사상을 견결히 옹호하고수호하여 하며 그이의 혁명사상을 철썬는 현상에 대하여서는 날카로운 투쟁을 벌려야 합니다.》

사명관동지의 혁명사상을 목숨으로 지킵시다. 이것은 우리의 가장 숭고하고 영예로운 임무입니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신 김정숙동지의 심장에서 터져나올수 있는 웨침이었다.

당사상일군들은 바로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지니셨던 이 숭고한 품도를 다하지도 달지도 말고 그대로 따라배워야 한다.

그래야 우리 당의 사상사업원칙을 배고 죽는 진짜배기혁명가, 당의 목숨을 맡겨주기 위하여 어떤 시련도 헤쳐나가는 참다운 전위투사, 열백백을 메가마 당정책을 학습하고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열혈의 인간이 될수 있으며 혁명적사상공세를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다.

지금 미제를 비롯한 계급주의반동세력들은 우리 당의 유일사상을 신념으로 삼고 무당적인 애로와 난관을 용감하게 뚫고나가는 우리 인민의 핵부기보다 더 위력한 사상과 불굴의 신념을 허물어려고 반공화국공화당이다. 우리는 사명관동지를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시며 충성다할것을 맹세한 사람들이다. 살아도 죽어도 우리는 사명관동지를 드린 충성의 맹세를 영원히 저버리지 않을것이다. 이것을 꼭꼭히 알아두라.》고 불같이 호명하시었다.

이처럼 김정숙동지께서는 사명부대와 멀리 떨어져계시였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지켜 신념을 굽히지 않고 견결히 싸우시였으며 마침내는 승리가 되어 수령님의 품에 다시 안기시게 되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엄광호의 리명

가자면 당사상일군들이 령도자의 사상을 목숨으로 옹호하고 령도자의 구상을 한몸바쳐 꽃피우려는 투철한 신념을 지녀야 한다.

김정숙동지께서는 혁명앞에 가장 엄혹한 난관이 가로놓여있고 자신의 생사조차 가능하기 어려웠던 시기에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을 목숨으로 옹호하시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로신, 방침대로만 싸우면 혁명은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확고한 믿음을 간직하고계시었다. 바로 이런 신념이 있었기에 김정숙동지께서는 이른바 간첩단사건을 조차하고 내내원들에게까지 약속을 하고문을 틀어대던 엄광호와 정면으로 대결하여 싸우실수 있었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권위를 옹호하여 불사조가 되어 싸우시는 김정숙동지를 굴복시키질수 없다는것을 위듯게나마 깨달은 엄광호는 주력부대가 일제의 《도벌》에 다 빠져버리고 눈 속에서 얼어죽었다는 《소식》을 날조하면서 그 무는 《자백》을 강요하시었다.

하지만 김정숙동지께서는 혁명의 배신자로 전락된 그에게 《네놈이 그러구 목숨로 우리를 놀래게할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사명관동지께서는 건재해서 우리 혁명을 이끌고계신다. 우리 유격대원들과 전제 빈위기의 사명관동지를 목숨으로 보위하고있고 나의 령도정신을 음모로써 배신하는 시기는 현상, 당적, 계급적이익에서 탈선하여 우리 내부에 쉬를 쏠게 하는 요소들을 제에 간과하자면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어야 한다는것을 산모범으로 보아주고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목숨으로 지켜싸우신것은 혁명적사상공세의 앞장에 선 당사상일군들이 따라배워야 할 귀중한 모범이다.

혁명적사상공세를 힘있게 벌려나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었다

프렐로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자코브 게틀레이홀레키사 주마각하

나는 귀국의 국경절인 자유의 날에 즈음하여 당신과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나라의 안정과 경제개발을 이룩하기 위한 당신과 귀국인민의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중심으로 축원하면서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더욱 강화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주제103(2014)년 4월 27일

## 깊이 관심하신 남새 공급문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 수령님은 위대한 령도자이시였을뿐 아니라 위대한 혁명가, 위대한 인간이시였으며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수십년전 원산시를 현지지도하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민생활과 관련한 회의를 소집하시었을 때에 있는 일이다.

회의가 시작되자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시의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먼저 월별로 남새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말해보라고 하시었다.

한 일군이 울리는 보고를 주의 깊게 들으며 수척한 무엇인가 적으면서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에 8, 9월에 남새가 제일 긴장한때 어떻게 해서 이곳에서는 8월에 더 많이 나오는지 물으시었다.

당시 시에서는 수백정보의 남새포장을 조성하여놓고 8, 9월에는 오이를 많이 생산하여 시안의 인민들에게 공급하려고 계획하고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계획이었던지 8, 9월에 남새가 많이 생산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하는것은 알수 없는 문

제였다.

잠시 망설이던 일군은 그에 대하여 어버이수령님께 솔직히 말씀드리었다. 그에게서는 한동안 생각에 잠겨계시다가 평양시에서는 8월에 오이가 제일 재배하기 힘든것으로 되어있다고, 그래서 지금 평양시에서는 8, 9월에는 가지, 양배추로 남새를 충족하고있다고 알려주시었다.

그러시고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8월의 날씨조건이 남새재배조건에 대하여 알려주시었다.

잠시 동안을 두시었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자신께서 남새문제를 가지고 10년간 연구해왔는데 힘이 든다고 나직이 말씀하시었다.

일군들의 가슴속에서는 불덩이같은것이 치밀어올랐다.

이윽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일군들에게 봄, 여름, 가을의 계절적특성에 맞는 우리 나라의 남새품종에 대하여 일일이 알려주시면서 인민들에게 남새를 실제로 먹이시는것이 중요하다고 간곡하게 말씀하시었다.

그러시고는 일군들에게 시에 파는 얼마나 들어오는지 물으시었다. 한 일군이 그에 대해 보고를 드리자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책상위에 놓여있는 수첩을 들어 다보시며 인민들에게 차례질 량을 몸소 계산해보시고나서 그만하면 괜찮다고 말씀하시었다.

이때 한 일군이 시내의 남새상점들에 들어온 파를 시안들에게 공급해주고도 상점들에 얼마간씩 남는다고 말씀하시었다. 그러자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 말을 듣고 하시면서 수첩을 들여다보시며 그 량을 다시금 계산해보시었다. 잠시 후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시에서 상점배치를 잘못해서 그렇지 않느냐 물으시었다. 시내 상점배치를 잘 배치하면 남새가 모자랄것이라고 말씀하시었다.

일군들은 머리를 들수가 없었다. 그들을 바라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동문제를 많이 할때 대해 강조하시면서 동무들이 세운 남새공급계획이 좋아우에 온 끝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다시금 절절히 말씀하시었다.

이날 인민들의 남새공급문제를 두고 고민하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을 우러러보시며 일군들은 그이의 숭고한 뜻대로 인민의 참된 행복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갈 불라는 결의를 다지시었다.

본사기자 정순화

## 박제표본이 전하는 이야기

인민군인들은 수백년 묵은 향나무를 통째로 따서 뿌리와 줄기, 가지의 껍질을 깨끗이 벗겨내고 잘라서 두꺼비 가죽에 달하는 새와 짐승피를 붙여 산모양대로 만들어 올려놓는 평장리 판공용박제표본을 마련하였었다.

《우리 당은 자라나는 세대들을 위해서라면 무언고도 아끼지 않습니다. 우리 당은 제일 좋은것을 다 어린이들에게 주고있습니다.》

주제 76(1987)년 4월 어느날이었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한 일군으로부터 인민군인들이 올린 박제표본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었다.

그이의 말씀을 받아안은 순간 일군의 심정은 몹시 서늘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너그럽게 웃으시며 동식물은 사람에게 특유는 청소년학생들에게 이를 담고 풍요한 우리 조국의 산천과 지리와 자연에 대한 지식을 주며 조국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키워주는데 좋은 직관교재이라고 하시면서 그렇기때문에 자신께서는 지방에 나가다니기도 하되 취미로 새나 짐승을 보면 그들을 잡아서 동물원으로 보내주고 박제품을 만들어 김일성종합대학에도 보내주도록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청소년학생들에게 박제표본을 안겨 주시길 소망하는 마음이

전체 인민군장병들의 한결같은 념원을 말씀드리면서 박제표본을 꼭 받아주셨으면 합니다라고 절절한 청을 드리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한두마리도 아니고 그렇게 많은 새와 짐승들을 가지고 종합적인 박제표본을 만드는데는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었다. 그러시면서 박제표본에 온갖 정성을 다 기울인 인민군인들의 수고를 위하여 해이려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일군에게 박제표본을 판공용으로만 뒤두기는 아깝다고 하시면서 박제표본을 평양학생소년공원에 보내주는것이 좋겠다고 이리시었다.

군당위원회

# 오바마의 남조선행각과 관련한 우리의 원칙적립장을 밝힌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

미국통령 오바마가 지난 25일부터 1박 2일간 남조선을 행각하였다. 오바마의 이번 남조선행각은 현대판 《유신》 파쇼통치와 반인민적악정으로 막다른 곤경에 몰려우고있는 치마두른 주주의 거두되는 양탈과 교태에 못이겨 이루어진 비정상적이고 해괴한 광대놀음에 지나지 않는다.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서로의 제 안속을 차리려고 상전과 주구가 높아낸 역겨운 추태에 대해서는 일일이 논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에게 대한 뿌리깊은 적대감과 대결의식으로 일관된 오바마의 악랄한 언동에 대해서는 엄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오바마가 이번 행각에 나서기 전에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보장에 책임있는 당사자로서 심사숙고하여 행동할 데 대해 의미심장한 충고를 준바 되었다. 그러나 오바마는 미향중국의 대동행이 과연 어떤 저급한 사고와 강도적인 기질을 소유하고있는가를 유감없이 실증해 주었다. 행각기간 오바마는 주최회담과 공동기자 회견, 미군남조선 《연합군사령부》 시찰 등을 통하여 우리를 끊임없이 걸고들면서 괴뢰들을 반공화국대결에로 적극 부추기었다. 지어 우리의 지위적인 핵확산과 로켓도발사를 구실로 보다 강도높은 국제적 《제재》와 《대북봉쇄》를 취하며 미사일방어체계 구축과 전시작전통제권전환기문 제까지 합쳐놓는 것으로 이번 행각의 주된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를 만천하에 드러내놓았다. 상전의 입김에 평가가 뻗친 박근혜 역시 감히 우리의 핵과 병렬로선, 존엄과 체제, 《인권》 문제까지 걸고들면서 편에 박은 독살을 뿜어대며 이미 온 거머의 배격을 받고 주홍에 처박힌 《드레멘션 언》까지 꺼내놓고 주자스럽게 늘어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대조선정책상과 실행의 피수인 미집권자

가 대양전선 남조선에까지 날아들어 우리를 함부로 걸고들며 못되게 놀아내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적립장을 천명한다. 첫째로, 미국은 우리의 정의로운 핵을 걸고들기 전에 인류에게 핵재앙을 몰아온 지난날과 오늘의 죄 많은 처사부터 깊이 반성해보는것이 좋을것이다. 오바마는 우리의 핵이 동맹국과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되고있으며 《북핵불용설》에 대하여 다시금 요란하게 력설해했다. 《북핵불용설》이란 우리의 핵보유를 인정할수도, 절대로 용납할수도 없으며 따라서 무조건 폐기하거나 포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마치 세계의 재판관이나 되는듯이 당당한 주권국가에 대고 혼계하는 모양새도 희미한 것이 없지 않은데도 주재도 모르고 제재는 오만방자하고 파렴치한 처사 또한 가소롭기 그지없다. 핵문제에 대해 말한다면 미국은 입이 열 백개라도 할 말이 없으며 오히려 우리가 미국에 따지고들것이 더 많다. 그때 미국이 세계제재의 야심을 품고 지난 세기 40년대에 증여에 벌려 사상초유의 원자탄시험을 벌려놓는데 이어 헤아릴수 없이 많은 핵시험을 연속 감행할 때 그 누구의 인정이나 허가를 받았던말인가. 폐망을 눈앞에 둔 산성장에 지나지 않던 이분당에 핵폭탄을 돌던지듯 할 때 그 어느 나라나 국제기구의 용인이라도 받았던말인가. 더우기 조선반도 남쪽에 1,000여개의 핵무기를 비축하고 때없이 방대한 핵력자 수단을 끌고들어와 핵전란을 일으키려 하고 광분할 때 그리고 수시로 대륙간탄도 미사일시험을 감행할 때 언제라도 그 누구의 승인이나 방해를 구한적이라도 있었는지가 하는것이다. 오늘날 세계적인 재난거리이고 골치거리인 핵문제는 바로 미국때문에 산성되었다.

우리의 핵 역시 미국의 항시적인 핵위협과 공갈때문에 생겨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우리의 핵문제를 빙기어두고 야기시킨 자기의 과거와 처지를 죄다 덮어둔채 파렴치하게 놀아내고있다. 지어 우리에게 대한 그 누구의 영향력자가 《북핵제거》의 《판권》이라고 제쳐대면서 주변나라들까지 강도높은 《국제적공조》와 《제재》에 끌어들이려고 획책하였다. 다시금 인정하지만 우리의 핵은 결코 그 누구의 인정이나 허가를 받고도 보유할 핵이 아니며 그 어떤 경제적거래를 노린 흥정물은 더욱 아니다. 더우기 미국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미국이 포기하란다고 하여 없어질 핵이 아니다. 우리의 핵이야말로 미국의 핵위협과 공갈이 청산될 때까지 유지하고 더욱 확대강화시켜야 할 자위적억제력이나 미국의 저주로운 핵공포를 깨어버리고 공정한 세계질서를 구축해야 할 정의의 보검이다. 미국은 남을 걸고들기 전에 자신부터 반성하고 회개하는 버릇부터 배워야 한다. 누워서 던진 돌이 제 이마밖에 떨어진다 하는 말의 의미를 이제라도 잘 새겨보고 현명하게 처신하는것이 자기를 위해서도 유익할것이다. 강자인 우리에게서 그 무엇을 숨길것도 없을것도 없다. 이번엔 오바마와 박근혜는 우리가 추가 핵시험을 감행할 모든 준비를 완료하였으니 우리의 핵무기가 세계를 통째로 뒤 흔들 수 있다고 우는 소리를 내기도 하였다. 지금 세계는 우리가 예고한 새로운 핵시험과 로켓도발사가 미증유의 편제인 《중북핵분열탄시험》으로 필것이라는, 미분도중심까지 타격할수 있는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의 《고속화입성》으로 필것이라느니 하는 견해와 억측들을 내놓고있다. 굳이 사실을 말해달라고 하면 우리는 그

이상의 조치들도 취할수 있다는데 대해 부정하지 않는다. 둘째로, 잊지도 않는 우리의 《도발》과 《위협》, 《인권》 타령에 때달리기 앞서 썩고 병든 미국사회의 약취부러 상기하고 입을 놀려야 할것이다. 남조선행각 기간 오바마는 박근혜를 안고들며 졸졸 그 누구의 《도발》과 《위협》에 대해 떠들면서 《인권》 문제까지 일어뜨려 자들이었다. 가련한 사대매국노 치마바람을 일구며 입방언을 해대는 꼴은 제정화된 민족반역자의 변덕으로 치부해버릴수 있었지만 미당국자가 체모에 어울리지 않게 높아낸 물결은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할 꼴불견이었다. 과연 도발과 위협이라는 문구의 개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렇게 입부리를 놀리는지 묻지 않을수 없다.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인성할 제 나라, 제 강도를 수호하려는 정당방위는 《도발》과 《위협》으로 되고 머나먼 남의 나라 땅에 밀려들어와 전쟁관등을 부리는 남강도적행위는 의로운 행위라고 우겨대는 미국의 적반하장과 흑백전도의 기질이 보다 똑똑히 폭로되었다. 그대도 정치를 하려면 응당 문수와 리치에 맞게 말을 하고 행동해야 할것이다. 미집권자의 언행을 보면 정치가로서의 품격과 지성은 고사하고 시정잡배나 다름없는 정치의 초년생, 외교의 초학도라 착각할 정도로 천박하다. 바로 이런 무지한 독선과 일방주의, 강권과 광면주의가 미국을 난처한 처지에 빠뜨리고 오바마 자신이 고안해내고 예설행하는 《전략적인내정책-기타는 정책》을 《전투면 전략》, 《무제한적 정책》으로 만들면서 미국의 쇠퇴와 몰락을 불러오았는것이다. 그 누구의 《인권》 문제 역시 그러하다. 인권을 곧 자주권이다. 사람은 자주권을 잃으면 살아도 죽은 목

숨이나 다름없다. 그 어떤 물질적공요나 호의호식도 자주권을 대신할수 없다는것은 장구한 인류사와 평엄한 오늘의 세상이 확증해주는 진리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참된 인권은 오직 우리 나라사람에 없다. 물론 우리에게도 아직 부족함있고 있고 어려움있고 있다. 하지만 우리 인민모두는 그 누구나 할것없이 진정한 자주권, 인권을 가지고있기에 누구에게는 참된 삶을 그토록 궁지높이 지부하는것이다. 미국이야말로 초보적인 자주권마저 상실된 인권불모지, 인간생지옥이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우리 조선이 결코 저들의 《인권》 타령에 무너진 중동이나 발칸반도의 나라들이 아니라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셋째로, 조선반도를 영원히 가로라고 앗으려는 기도가 미국의 수지와 교묘를 촉진시키는 시대착오적인 망상이라는것을 명심하는것이 나쁘지 않을것이다. 이번엔 오바마는 비제정인을 한민 문민절대로 놓지 않는 승냥이의 야수적기질을 또다시 드러내놓았다. 2015년말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환기와 조전을 제검토하도록 괴뢰들을 몰아내었다. 미국은 근 70년간 타고앉은 남조선이라는 전략요충지를 놓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하나 전시작전권을 거머쥐려 하였다. 그래서 우리의 《지속적인 위협》에 대해 떠들고 《전쟁억제력》을 제창해냈었다. 괴뢰들과 《맞춤형억제전략》을 고안해내고 미사일사거리를 800km까지 늘이도록 해주는 한편 미사일방어체계구축에 골목 뛰어들어 못해 나중에는 전시작전전환 연기의 제검토까지 확정해놓은것이다. 박근혜는 수직스텝제도 수백명의 생명을 앗아간 려개선침몰이라는 특대형불상사로 온 남조선이망이 초상집으로 되어버린

판국에도 상전의 덕만에 매달려 미국의 영구강점을 애걸하고 저들의 불상사를 위문한 동족에 대해서는 강도높은 《압박》과 《제재》를 간청하는것으로 천하의 돌도 없는 반평화, 반동일, 반민족적인 친미사대매국노, 동족대결망으로서의 정체를 그대로 드러내보였다. 남조선을 영구강점하려는 미국의 침략적기도는 백발천달이 가도 절대로 성사될수 없는 망상이다. 아직도 상대를 너무도 모르는 미국에 선언하는 우리의 립장은 명명백백하다. 미국의 반공화국적시책이 우심해지면 철수후 우리의 보복대응은 배배천배해질것이다. 조선반도의 남쪽상공에 까맣게 덮여 넘치는 제국주의괴뢰매를 가소롭게 여겨서 전군의 비행사들모두를 태양열의 력사적인 대외전으로 불러 밀적의 승전도를 마련한 신기모의 위대한 담력과 기개가 바로 백두산대국의 필승불패의 기상이고 무한한 힘이다. 최근에 올린 주재포의 명중포성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전면적인 파산과 박근혜의 비참한 운명을 예고하는 신호탄이다. 미국이 몰아오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의 파도가 제아무리 평안을 부러도 억척으로 다져진 우리의 신장방에는 끄떡없다. 엄습하는 공포와 절망때문에 오바마가 남조선에 황급히 날아들고 유사스러운 박근혜는 상전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강도높은 《제재》와 《압박》에 대해 아무리 고대해도 처참한 신세를 면치 못하게 필것이다. 오바마는 지금이라도 사태를 똑바로 가늠해보고 악랄한 대조선적대시정책으로 엄습하는 것은 무엇이고 잃은것은 무엇인가를 냉철하게 들여다보는것이 좋을것이다. 절대로 백악관관좌를 차지하고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다시금 충고한다. 주제103(2014)년 4월 28일 평 양

# 조선속도창조의 앞장에 설 불같은 맹세를 안고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에 참가한 황해남도려단의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꾼들은 강성국가건설의 요구와 현실적조건에 맞게 건설의 선순환을 바로 정하고 능숙한 조직적수완과 대담하고 웅이 큰 작전으로 자기 단위에 맡겨진 건설과제를 대담성로, 단계별로 벌이 변혁 나래 해쳐야 합니다.»** 올해 1, 4분기사회주의경쟁에서 1등의 영예를 쟁취한 황해남도려단의 성과와 경이이 주목을 끌고있다. 이곳 려단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원대한 구상과 의도를 높이 받들고 최전5호발전소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총돌격전에 산악같이 떨쳐나 불과 너달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많은 량에 달하는 굴착 및 성토파제를 완수하고 콘크리트기계를 확실히 넘쳐 수행하는 현상을 창조하였다. 어느 단위에서나 돌격대원들의 정신력이 최대한으로 분출되고 낮과 밤이 따로 없이 불꽃튀는 건설전투를 벌리고 있는 실정에서 이 들이 우승한 비결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 우승을 안아온 과학적인 작전과 지휘

우리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 보는 과정에 이곳 지휘관들이 자기 단위의 특성에 맞게 공사의 오늘날뿐 아니라 매일까지 내다보며 과학적으로 타산하고 작정하고있는데 주의를 돌리었다. 우안연제구간의 기초굴착이 성과급으로 끝나게 되었을 때였다. 지휘관들의 협의에서는 다음단계공사방향을 두고 진지한 논의가 벌어졌다. 한가지 방안은 겨울철에 콘크리트치가 진입할수 없는 조건에서 나머지 좌안연제구간에 대한 가돌막이대책을 미리 세우자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발전기실굴착에 역량을 총동원한 자를 세우자는 것이었다. 실제로 어느 한 려단에서는 좌안가돌막이공사에 드센 박차를 가하여 전반적인 연제구간에서 발전소건설을 다그칠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제끼고 있었다. 또 다른 단위에서는 발전기실굴착에 설비와 로력을 집중하여 종전에 비해 훨씬 높은 공사속도를 창조하고있었다.

하지만 황해남도려단의 실정에서는 우안연제구간의 콘크리트치를 진행할 수 없어 좌안가돌막이를 확고히 내밀수 없는 조건에서 그 준비작업이나 하는것은 큰 의의를 가지지 못하였다. 그렇다고 발전기실구간에 화력을 집중하면 작업공간이 협소하여 설비와 로력사용에서 적지 않은 방비를 가져야 할수 있었다. 바로 이런 때 주전을 세우고 작정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기 단위의 구체적인 실정을 고려함이 없이 무턱대고 남의 본을 따거나 이전부터 해오던 방식을 기계적으로 되풀이한다면 언제 가도 획기적인 비약을 이룩할수 없고 답보와 침체만이 있을뿐이다. 그러면 어떻게 작정할것인가. 현행공사정형과 앞으로 해야 할 건설과제를 놓고 지휘관들과 함께 실리를 하나하나 따져본 려단장 김석철동무가 장 발전적인 방안을 내놓았다. 즉 지금 진행중인 발전기실굴착에 전투력이 강한 대대와 착암 및 굴착설비만을 보장하고 나머지

력량으로는 좌안가돌막이가 아니라 앞으로 진행할 콘크리트 치기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자는 것이었다. 이 결심은 면밀한 타산에 기초한것이였다. 사실 발전소건설에서 수력 구조물들의 콘크리트치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려단지휘관들이 해도계절의 첫시작부터 콘크리트기계를 불이 번쩍 나게 내밀어야 공사실적을 결정적으로 높이고 우안연제구간을 기본적으로 해결할수 있으며 그에 도대하여 장미철전으로 좌안연제구간에 진입하여 그곳에 건설하게 될 수력구조물들의 높이를 안전수준까지 끌어올릴수 있었던 것이다. 이 방안은 공사의 오늘날뿐만 아니라 패가까지 내다보며 작정된것이였다. 군사작전에서 진술을 잘 짜서 전투에서 승리하는것을 소중히 여기지만 전력을 바로 세우고 후퇴를 정취할수 있듯이 건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눈앞의 현행공사에만 급급하면서 전반적인 건설성과 앞으로 수행해야 할 과제

들을 망라하여 자체의 기술력량을 충분히 꾸리고 현장지휘부의 적극적인 지도와 방조 밑에 콘크리트기계를 와닥닥 내미는데 필요한 세멘트운반과 철근가공, 휘틀제작을 확고히 할것이었다. 승리는 전투전에 마련되는 법이다. 이곳 지휘관들의 능숙한 작전과 지휘는 우승의 영예를 쟁취하는데 중요요인으로 되었다. 황해남도려단에서는 설비와 로력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남은 발전기실굴착과 체도 제기내에 성과적으로 끝낼수 있었으며 팀체전의 방법으로 해도계절의 첫시작부터 콘크리트기계를 줄기차게 들어대어 콘크리트치기 작업을 훨씬 넘쳐 수행하는 계획없는 기적을 창조할수 있었다. 자기 단위의 실정과 구체적인 공사조건에 맞게 주전을 가지고 현행공사와 전담과제수행을 다같이 내다보면서 과학적으로 작전하고 전투투력을 실속있게 짜고드는 황해남도려단지휘관들의 혁신적인 안목과 창조적인 사업기풍은 본받을만 한것이였다.

심금을 콩콩 울리는 사상계승기어이 당서 정해준 시간에, 당에서 바라는 높이에서 한 공을 또 써서 조선의 결심은 끝칠되고 현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우리가 잘살기를 바라는 것이 없는 온갖 인위들에게 단호한 침투를 내리치고 열렬히 호소하고있다. 온몸이 혁명당, 투쟁열로 불타는 일꾼들이 형식과 틀이 없이 진정을 담아 구수하게 진행되는 사상사업은 돌격대원들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며 그들을 새로운 기적과 위훈창조으로 힘있게 떠밀어주고있다. 특히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소유한 기술자들과, 설비관리운영을 담당한 기능공들과 운전사들의 사업조건, 생활조건을 책임적으로 보장하고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투쟁력을 최대한 발휘시키기 위한 사업을 옹호하는 힘을 넣음으로써 전진의 돌파구를 힘있게 열어제끼고있다.

## 창조와 비약이며 불멸의 전복성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건설에서 오늘의 전성기를 대변영기로 더욱 고조시켜선군조선의 새로운 건설혁명을 창조하고 건설부문에서의 혁신의 봉화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대비약의 불길로 세차게 라번지게 하여 주국번영의 새시대를 펼쳐나 가려는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입니다.»** 여기는 새로운 비약의 폭풍이 세차게 휘몰아치는 최전5호발전소건설장이다. 시공파조 리영식동무가 수기를 흔들며 호감을 부는데 따라 육중한 기중기가 부지런히 혼합

원들이 콘크리트기속도를 배로 높였다. 물론기계들과 각종 설비들의 동음이 힘차게 울려지는 속에 맞은편 발전기실공사장에서도 비

창조해나갈 불타는 열기가 한껏 비껴흐르고있다. **«지금 려단은 발전소건설에서 또다시 최고기록을 돌파하기 위한 총공격전을 드세게 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를 열흘, 백날맛집으로 폭풍처럼 내달림으로써 기어이 완공의 명마루에 승리의 기발을 남김없이 휘날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우리와 만난 정치부장 안영구동무의 심심과 열정에 넘친 말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세차게 휘몰아치는 비약의 열풍속에 강성부흥의 대토보인양 수문기동들이 또한 키를 울리며 승리의 정점을 향해 움직여 서있다. 려단장 김석철동무는 언제나 현장에서 든든히 발을 붙이고 대오를 앞장서 이끌어나가는 믿음직한 지휘관이다. 그는 어렵고 힘든 일에 남다른 어깨를 들이밀고있으며 변화되는 공사조건에 맞게 전투적 조직과 지휘를 기동성있게 짜고 들고있다. 특히 굴착과 콘크리트기에서 돌격대원들과 함께 밤낮이 따로 없는 치열한 돌격전을 벌림으로써

## 청천강반에 위훈을 새겨가는 선구자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같은 건설공사를 실현하는 길에 자기의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쳐 조선은 한다면 기어이 한다는것을 실천으로 보여주어 줄것입니다. 내달리는 우리 조국의 승리와 기상을 온 세상에 피시한 인민군인들을 비롯한 건설자들은 선군시대의 영웅들이고 우리 당의 보배들이니.»** 경애하는 원수님의 원대한 구상과 의도를 높이 받들고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에서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며 집결같이 내달리는 돌격대원들의 앞장에 우리의 미더운 혁신자들이 서있다. 려단장 김석철동무는 언제나 현장에서 든든히 발을 붙이고 대오를 앞장서 이끌어나가는 믿음직한 지휘관이다. 그는 어렵고 힘든 일에 남다른 어깨를 들이밀고있으며 변화되는 공사조건에 맞게 전투적 조직과 지휘를 기동성있게 짜고 들고있다. 특히 굴착과 콘크리트기에서 돌격대원들과 함께 밤낮이 따로 없는 치열한 돌격전을 벌림으로써

방대한 작업과제를 기한전에 훨씬 앞당겨 끝내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배전군대대 대장 신혁철동무는 제법손있는 일본세를 지니고 맡은 공사과제를 무조건 제기내에 완수하고야마는 유능한 일꾼이다. 대대를 쇄소리나는 기중대대로, 전투력이 강한 집단으로 만든 그는 전진하는 대오의 기수가 되어 공사에 더욱 드센 박차를 가하면서 콘크리트치기 작업 속도를 높여 수중에서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도 옹호하는 힘을 넣고 있다. 오늘날 그와 대대의 전투원들은 수문기동공로트기에서 매일계획을 1.5배이상이 되도록 해체하고는 려단의 모범으로 자랑되고있다. 강령군대대 정치지도원 신광철동무는 당의 구상과 의도를 높이 받들어 공사장마다에서 사상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고

있다. 그는 돌격대원들을 가르치기 전에 그들에게서 먼저 배우며 화산석정시사업으로 대중을 새로운 기적과 위훈창조으로 힘있게 떠밀어주고있다. 대원들의 마음속에 한결같이 늘이라도 있을새로 항상 친언어니심정으로 위해주며 깊은 밤, 이른 새벽에도 웃음, 마름질 가림이 돌격대원들을 위해 아글라글 애쓰는 그를 대대전투원들 모두가 존경하며 따르고있다. 벽선군대대 시공참모 공광호동무는 누가 보진말진, 알아주진말진 깨끗한 맘을 바쳐가며 공사의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시공은 건설의 기본공정이라는 것을 명심한 그는 여러가지 안전 공법들을 적극 받아들이며 시공에서 기술규정의 요구를 엄격히 지켜나가고있다.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하는 구조를 단순한 선동구조로서가 아니라 당을 받들고 조

## 폭풍쳐 내달리자!

대짐기들을 혼합물속에 폭풍 막으며 콘크리트치를 열중한다. 언제나 혁신의 앞자리를 양보하지 않고있는 신현군대대 전투원들이 수문기동의 완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세를 올릴 때 마지막구간에 대한 휘틀조립을 끝낸 벽성, 온물군대대의 돌격대

약의 불바람이 휘몰아치고있다. 조국과 시대의 부름앞에 말로 써가 아니라 심장을 내내며 헌신의 피와 땀으로 전진의 돌파구를 힘차게 열어나가고있는 모들의 열광마다에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에서 반드시 새로운 시대정신, 제2의 최전성기를



김석철동무

신혁철동무

신광철동무

공광호동무

고양선동무

김석철동무

신혁철동무

신광철동무

공광호동무

고양선동무

글 및 사진 현지도반

# 사회주의대지를 가꾸어가는 미더운 농촌초급일군들

## 대동군 마산협동농장 제10작업반 반장 장현철동무, 통천군 신암협동농장 제2작업반 3분조장 장영삼동무, 어랑군 운곡협동농장 제3작업반 2분조장 최순녀동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농업부문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농사를 잘하여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늘리는것이다.》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 경제강국건설의 주타격방향인 농업전선에서 혁신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있다.

사회주의농촌경제발전 50년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양상을 일으키기 위한 올해의 총공격전의 앞장서 대동군 마산협동농장 제10작업반 반장 장현철동무, 통천군 신암협동농장 제2작업반 3분조장 장영삼동무, 어랑군 운곡협동농장 제3작업반 2분조장 최순녀동무와 같은 미더운 농촌초급일군들을 세웠다.

몇해전까지만 하여도 장현철, 장영삼, 최순녀동무들이 맡은 작업반과 분조들은 알곡생산에 비롯한 여러 면에서 앞선 단위가 못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을 농촌초급일군으로 내세워준 당의 믿음과 기대에 높은 농업생산성으로 보답할 불타는 일념을 안고 언제나 대오의 기수가 되어 이악하게 투쟁해나감으로써 짧은 기간에 작업반과 분조농사에서 전국의 본보기로 창조하는 놀라운 성과를 이룩하였다.

장현철동무가 대동군 마산협동농장 제10작업반 반장으로 일하기 시작한것은 몇년전이다. 작업반도 그때 무어였다.

너무도 메마르고 농사짓기가 힘들어 알곡을 정보당 수백kg밖에 수확하지 못하던 곳여서 작업반조차 못지 못했었다. 얼마 안되는 논은 지력이 낮고 맹해를 많이 받는데다가 마산리라는 이름 그대로 산이 많은 곳여서 밭마저 모두 비탈밭이었다. 보습날조차 제대로 댈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모든것이 지나간 일로 되었다. 작업반은 오늘 마산리는 물론 군속으로도 제일 높은 알곡소출을 내고있다. 해마다 알곡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일 잘하는 작업반, 3대형뽕봉기를 수여받은 자랑 많은 단위로 이름떨치고있다.

작업반의 전변을 두고 그 비결을 묻는 사람들에게 제10작업반 농장원들 누구나 한목소리로 말한다.

《허리띠에 쌀인 솜눈보라 먼저 걷는 사람이 있어 열릴게 아니니까. 우리 작업반전변에 난 것 자옥의 주인은 언제나 작업반장입니다. 그 일뿐이 아니라 오늘과 같은 현실을 안아왔지요.》

작업반장으로 임명된 날 장현철동무는 해가 기울도록 작업반 초장들과 마을을 돌고 또 돌았다. 보면 볼수록 모든것이 어설플고 아름다웠다. 갖 제때되어 아직 농사경험도 부족한 것이다. 참으로 생각이 깊었다.

그러던 어느날 저녁이었다. 저녁이 될수록 마을을 돌아보고 싶고 돌아오는 그의 귀전에 한쪽을 농사로 늘어났던 한로인의 이야기가 좀처럼 사라질 줄 몰랐다.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도 주인이든 밭에서 제 집터밭처럼 길구면 안될터이 있소. 사람들도 이고저가 수가 있어야지요.》

깊어지는 생각을 하고 술술 우겨진 고개마루에 오르니 멀리서 갈매기는 불빛들이 안겨왔다. 밤에서 흘러나오는 불빛이었다. 문득 그의 뇌리에 보라빛이던 군사부사설이 떠올랐다.

어느해 겨울밤 야간행군길에 오른 그의 중대가 산길을 돌아오는데 문득 불빛이 보였다. 그 불빛을 따라나서서 불빛이던 군사부사설이 떠올랐다.

《현철이, 산배라 불렀던 농사밭이 보이시? 그 불빛을 따라나서서 불빛이던 군사부사설이 떠올랐다.》

작기의 배낭을 빼앗다싶이 메

협동농장 제3작업반 2분조장 최순녀동무와 같은 미더운 농촌초급일군들을 세웠다.

《오늘 새벽에 제가 저나른 거름더미입니다. 한민 저나른 거름량과 발동성까지의 거리를 측정해보았는데 장정로력 두어명이면 여기 있는 밭에도 모두 거름을 낼수 있습니다.》

작업반장의 이야기에 분조장들은 머리가 숙여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장현철동무는 이렇게 자신과 작업반초급일군들에 대한 요구성을 부단히 높여나갔다.

벼모내기과 강병이심기가 끝난 후 느릿느릿이. 자정이 가까와올 무렵 늦어진 애벌겋메기를 마저 끝내고 집에 들어서는 그에게 안배가 많았다.

《여보, 작업반장이 꼭 그렇게 해야만 하나요? 분조들에 분담을 준 다음 조건보장과 총화를 따라세워도 되겠는?》

안배가 자기의 몸상태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을 모르지 않았지만 장현철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근대로 말하면 작업반은 분조와 같고 할수 있소. 작업반장은 분조장이고. 당에서는 나를 믿고 수신회보나 되는 땅을 맡겨주었는데 지휘관인 내가 어떻게 못이 불편하다? 가만히 앉았을수 있겠소.》

그날밤 장현철동무는 안배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자기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였다.

아직 작업반의 모든 일이 땅이 바라는 높이에 이르지 못했다는 생각, 하루를 열매도 쪼개서라도 잘만음쳐살아야 한다는 자각으로 그는 불편한 몸을 애써 가누며 열정적으로 일했다.

그는 포전에서는 간신히 살고있고 그러고 작업반구리전투장에서 숨어있는 추조공, 미장공이었다. 밤에는 어떻게 하면 농사를 더 잘 지을수 있는가를 연구하고 사색하며 손에서 책을 놓을 줄 몰랐다.

그렇게 날과 달이 흐르는 속에 첫째 가을이 왔다. 봄내, 여름내 애써 가꾼 이삭들이 포전마다 무겁게 실려져 전해에 비해 무려 10배의 알곡소출을 내게 되었다. 그전에는 생각조차 할수 없었던 알곡소출이었다.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자기들의 손끝에서 이런 기적이 이루어지리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했었다.

첫해 농사에서 신심을 얻은 농장원들모두가 다음해부터 두 팔을 걸어붙이고 땀쳐나섰다.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도입하고 집집승우리에서 나오는 두엄은 물론 도거를, 풀거를과 개비타흙을 비롯한 거름원천을 남김없이 찾아 논밭에 썼다. 마을에 양어장을 꾸리고 비섯재배장과 남새은실도 번듯하게 건설해놓았다.

해마다 알곡소출이 높아지고 살림살이가 윤택해지자 신바람이 난것은 농장원들이었다. 자체의 힘으로 알곡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여 나라살속에 보탬을 주고 분배해도 늘어나 그자체가 곧 농장원들에 대한 말없는 교양이 되고무였다. 그런 가운데 농사일에 마음을 불이치 못하던 농장원들도 작업반이 자랑하는 혁신자로 이름떨치게 되었다.

올해초 작업반에 경사가 갔다. 다른 작업반, 다른 농장과는 달리 이쪽 작업반에서는 작업반장과 분조장들모두가 전국농업부문보조장대회에 참가하게 되었던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은 끝없는 감격속으로 고향마을로 돌아온 날 장현철동무는 농장의 작업반장, 분조장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 인민들의 먹는 문제때문에 그토록 마음쓰신 위대한 대원님들의 소원을 아끼가지 못다 풀어드렸습니. 그런데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해놓은 일보다 해야 할일이 더 많은 우리들에게 대대같은 은정을 베풀어주시었습니다. 사랑과 은정에 보답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장현철동무는 알곡소출을 위한 사회주의경쟁을 옹호하였고 그리고 그달음으로 작업반에 내려가 농장원들을 당면한 영농전투에 불려일었다.

그러하여 작업반은 올해 3월 초까지 정량보 수신회 좋은 유기질비료로 포전에 내고 수백의 흙보신비료를 생산하였으므로 10정보의 땅을 지을게 개량하고 영양도에 의한 모내기 면적을 80%까지 끌어올리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작업반의 올해농사도 문제였다.

오늘도 작업반원들의 앞장에서 남던져 헌신의 자옥을 적어가는 장현철동무.

농장포전의 곳곳마다 펼쳐지는 그의 발자욱들은 말해두고있었다. 그의 농장의 작업반장은 과학기술적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곤 하였다. 모판관리공들에게 어떤 온도조절, 모영양관리, 병해방치 등 모판관리에서 나는 요구들을, 시야시비료들에게는 병해충에 잘과 구제사업에서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할 문제들을, 논물관리공들에게는 물고를 알맞게 조절하도록 알기 쉽게 일깨워주었다. 모내는 기계도 직접 타보면서 모내기시작의 간격을 정확히 보장하도록 하였다.

그는 자기 집은 물론 분조원들의 집에서 생산되는 거름도 온도와 습도를 정확히 보장하면서 기술적으로 써이도록 하였다. 그렇게 마련한 질 좋은 거름이 해마다 분조의 포전들에 정량보 수신회 떨어지고 기른지출을 이루었다.

우리 분조장은 정말 모르는것이 없다고 하면서 분조원들이 허를 찼다. 분조의 알곡소출이 다른 분조들보다 높았던 현실에서 과학농사에 대한 분조원들의 견해도 달라졌다.

다른 분조장들이 자기 분조와 별반 차이가 없는 포전들에서

의 대지우에 성실한 땅방울을 아낌없이 뿌려 알찬 이삭만이 무르익게 할 결심에 그의 가슴속이 비어처럼 자리잡았다.

열의는 높았지만 그때까지만 하여도 장영삼동무는 과학농사의 원리를 깊이 파악하고있지 못했다. 그에게 큰 충격을 준것은 분조장으로 임명된 첫해의 농사작황이었다. 들인 품은 컸으나 전해도 더 무거워졌었다. 자제

그는 자기의 사업을 심중히 돌이켜보았다. 벼심을 들어 농사를 지으면 그만큼 알곡소출이 따라설것이라고 생각했던 자신을 뒤우며 안타까운 마음을 머금은 그에게 관리위원장이 미웠던 어조로 말하였다.

《혹심은 모르지만 지을 때가 아니지 않나요. 과학기술이식이나 부족하면 분조농사의 주인 기수라도 배우고 싶지 않나? 과학농사의 참된 주인이 될 때 영광의 이 땅을 가꾸는 진채배기실농군이 될수 있습니다.》

관리위원장의 그 말이 장영삼동무의 가슴속에 그처럼 박히었다.

—열심히 배우자. 과학농사로 영광의 이 땅을 더욱 기름지게 하고 풍요한 가을만을 안아오자.

이런 결심과 함께 장영삼동무는 모든 영농공정들의 과학기술적으로 완히 알기 위해 이악하게 달려들었다. 작업의 철학이 포전마다 되었다. 작업이 끝난 후 포전에서 돌아오는 길에서도 그의 손에는 언제나 칼이 떨어지질 못했다. 하루일을 끝마친 저녁이면 작업반 농업과학기술자식선진로 찾아가 작업반 기술원의 방조를 받아가며 밤늦게까지 농업과학기술지식들을 습득했다. 모든 영농공정들의 자기보장문제, 농작물의 생물학적특성과 기후후조조건 등을 반영한 해당 작업수행의 기술적문제를 비롯하여 그는 실전에서 써먹을수 있는 산 지식을 하나하나 배우며 탐구의 세계를 넓혀갔다. 이러한 과정에 알곡소출을 결정짓는 요소를 늘일수 있는 방도는 과학농사에 있다는것을 더욱 절감하게 되었다.

그의 일본에서 배운 변화가 일어났다. 거름을 내어도 포전들의 지력을 기술적으로 따져가며 그에 맞게 분조와 작업반담을 줄 때에도 분조원들에게 진행하게 된 작업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곤 하였다. 모판관리공들에게 어떤 온도조절, 모영양관리, 병해방치 등 모판관리에서 나는 요구들을, 시야시비료들에게는 병해충에 잘과 구제사업에서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할 문제들을, 논물관리공들에게는 물고를 알맞게 조절하도록 알기 쉽게 일깨워주었다. 모내는 기계도 직접 타보면서 모내기시작의 간격을 정확히 보장하도록 하였다.

그는 자기 집은 물론 분조원들의 집에서 생산되는 거름도 온도와 습도를 정확히 보장하면서 기술적으로 써이도록 하였다. 그렇게 마련한 질 좋은 거름이 해마다 분조의 포전들에 정량보 수신회 떨어지고 기른지출을 이루었다.

우리 분조장은 정말 모르는것이 없다고 하면서 분조원들이 허를 찼다. 분조의 알곡소출이 다른 분조들보다 높았던 현실에서 과학농사에 대한 분조원들의 견해도 달라졌다.

다른 분조장들이 자기 분조와 별반 차이가 없는 포전들에서

알곡소출을 늘일수 있는 비결을 물을 때면 장영삼동무는 확신있게 말해주었다.

《과학농사에 알곡증산의 예비가 있습니다. 우리 분조장들이 과학농사를 내리는 관건과 태도에 따라 분조의 한해농사가 좌우됩니다. 그러나 더 많이 배워 과학농사의 참된 주인이 될 때 이 땅에 열리는 낫달의 무게도 더 무거워질것입니다.》

이렇게 장영삼동무는 과학농사의 하루하루 영광의 땅우에 풍요한 가을만을 안아왔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마련해 주신 전국농업부문보조장대회에 참가하였던 장영삼동무가 돌아왔을 때 그의 가방속에는 여러개의 무거워들만한 수첩들이 들어있었다. 그 수첩에는 맹해가심한 동해지역에서 두벌논, 세벌논을 실속있게 하고있는 함주군 동봉협동농장과 정보당 10t 이상의 소출을 내고있는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을 비롯하여 전국구 수많은 단위의 분조

장들이 들려준 귀중한 경험들이 배곡이 적혀있었다. 수첩들을 열쳐본 분조원들의 미더운 눈길에 장영삼동무에게로 쏠려왔다.

《우리 분조장이 이렇게 많은 보물수첩들을 안고있으니 올해농사에서 통찰은 문제없구만요.》

우리 당의 농업정책과 주체농법을 실농군의 기준자로 삼고 과학농사의 선구자가 될 일념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장영삼동무는 오늘도 드브레 달리고있다.

분조장들은 농사일에서 모르는 것, 막히는것이 없어야 하며 현대 농업과학기술지식을 소유하고 여러가지 농기계를 능숙하게 다루를 수 있게 준비하여야 한다고, 분조장들은 새것에 민감하고 진취성이 강해야 하며 각종 영농기술과 방법, 좋은 농사경험들을 대담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시현의 구절들을 깊이 새겨보며, 오늘의 시대는 이런 과학농사의 참된 주인, 진채배기실농군들을 부르고있다.

두고 안타까와하는 분조장의 마음에서 분조원들은 다시한번 머리를 숙여왔다.

최순녀동무와 함께 밭길을 걷는 분조원들이 늘어났다. 저마다 부역이공의 재를 들고나갔고 집집승우리밭을 파고들고 나왔다.

거름더미이자 썰미미라고 날마다 높아가는 거름더미를 보며 분조원들이 신바람이 하였다. 그럴수록 최순녀동무는 영농공정마다 높은 목표를 세우고 분조농사를 적극 내밀었다.

세부리기부터 과학기술적으로 정확히 지기도록 하였고 김매기철에도 김매기와 후지철을 6회씩 보장하도록 요구성을 높이고서 자신들이 앞장서 밭길을 닦았다.

발농사는 논농사보다 품이 곱절 든다. 병해충피해마와 강병이끼괴뢰병 등 어느 한 공정도 소홀히 대할수가 없는것이다. 그럴 때면 최순녀동무는 포전에서 살다시피 하였다.

장마철에도 포전에서 밭을 꼬박 새우며 한포기의 곡식이 상하지 않게 철저한 대책을 세우고 김매기 지역을 높이고 비배편에 힘을 넣는 결과 분조에서는 그해에 강병을 정보당 7.5t 거두어들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최순녀동무와 분조원들은 모두가 팔뚝같이 싣한 강병이삭들을 수확하여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또 흘렸다.

어항땀에 주신 어머니사랑의 유혹을 농장적으로 제일 마지막 자리를 차지하던 자기들이 관철하였다는 긍지와 이익하게 노력하던 우리도 얼마나 기쁘게 잘 지을수 있다는 희망이 가슴에 차올랐다.

분조원들은 분조농사자나니의 농사일것을 실천으로 체현하였다. 그해 농사경험을 귀중한 밑천으로 삼고 선진영농방법을 부단히 받아들여 분조에 쓰는 해마다 알곡생산량을 늘려나갔다.

분조원들의 살림도 나날이 윤택해졌다. 오늘 분조는 농장의 제일 앞자리를 차지하는 분조가 되었다.

지난 2월 전국농업부문보조장대회에 참가하고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은 최순녀동무는 심장으로 땀을 흘렸다.

《경애하는 원수님! 우리 운곡포에서도 어떻게 하나 강병을 정보당 10t이상 내주세요.》

이 불타는 맹세를 안고 최순녀동무는 오늘도 분조의 포전에 전심을 쏟고있었다. 자기 집터밭을 가꾸듯...

### 첫 자옥의 주인

《여러차례 쌓인 솜눈보라 먼저 걷는 사람이 있어 열릴게 아니니까. 우리 작업반전변에 난 것 자옥의 주인은 언제나 작업반장입니다. 그 일뿐이 아니라 오늘과 같은 현실을 안아왔지요.》

작업반장으로 임명된 날 장현철동무는 해가 기울도록 작업반 초장들과 마을을 돌고 또 돌았다. 보면 볼수록 모든것이 어설플고 아름다웠다. 갖 제때되어 아직 농사경험도 부족한 것이다. 참으로 생각이 깊었다.

그러던 어느날 저녁이었다. 저녁이 될수록 마을을 돌아보고 싶고 돌아오는 그의 귀전에 한쪽을 농사로 늘어났던 한로인의 이야기가 좀처럼 사라질 줄 몰랐다.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도 주인이든 밭에서 제 집터밭처럼 길구면 안될터이 있소. 사람들도 이고저가 수가 있어야지요.》

깊어지는 생각을 하고 술술 우겨진 고개마루에 오르니 멀리서 갈매기는 불빛들이 안겨왔다. 밤에서 흘러나오는 불빛이었다. 문득 그의 뇌리에 보라빛이던 군사부사설이 떠올랐다.

어느해 겨울밤 야간행군길에 오른 그의 중대가 산길을 돌아오는데 문득 불빛이 보였다. 그 불빛을 따라나서서 불빛이던 군사부사설이 떠올랐다.

《현철이, 산배라 불렀던 농사밭이 보이시? 그 불빛을 따라나서서 불빛이던 군사부사설이 떠올랐다.》

작기의 배낭을 빼앗다싶이 메

### 의 달리는 증대장의 전에서

여러개의 총신들이 달발을 받아 번쩍거렸다. ...

(그렇다. 내가 주인이 되고 기수가 되어 제일 무겁게 짐을 짊어지고 농장원들의 앞장에 서야 한다. 내가 걸지 않은 길, 내가 해보지 않은 일을 농장원들에게 요구할수는 없지 않나?)

다음날 작업반원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장현철동무는 누구에게나 이렇게 물었다.

《우리 작업반이 일어설 방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대답이 없었다. 잠시후 농장원들이 이주동성으로 말하였다.

《그렇다. 내가 주인이 되고 기수가 되어 제일 무겁게 짐을 짊어지고 농장원들의 앞장에 서야 한다. 내가 걸지 않은 길, 내가 해보지 않은 일을 농장원들에게 요구할수는 없지 않나?》

다음날 작업반원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장현철동무는 누구에게나 이렇게 물었다.

《우리 작업반이 일어설 방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대답이 없었다. 잠시후 농장원들이 이주동성으로 말하였다.

《그렇다. 내가 주인이 되고 기수가 되어 제일 무겁게 짐을 짊어지고 농장원들의 앞장에 서야 한다. 내가 걸지 않은 길, 내가 해보지 않은 일을 농장원들에게 요구할수는 없지 않나?》

다음날 작업반원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장현철동무는 누구에게나 이렇게 물었다.

《우리 작업반이 일어설 방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대답이 없었다. 잠시후 농장원들이 이주동성으로 말하였다.

《그렇다. 내가 주인이 되고 기수가 되어 제일 무겁게 짐을 짊어지고 농장원들의 앞장에 서야 한다. 내가 걸지 않은 길, 내가 해보지 않은 일을 농장원들에게 요구할수는 없지 않나?》

### 의 달리는 증대장의 전에서

여러개의 총신들이 달발을 받아 번쩍거렸다. ...

(그렇다. 내가 주인이 되고 기수가 되어 제일 무겁게 짐을 짊어지고 농장원들의 앞장에 서야 한다. 내가 걸지 않은 길, 내가 해보지 않은 일을 농장원들에게 요구할수는 없지 않나?)

다음날 작업반원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장현철동무는 누구에게나 이렇게 물었다.

《우리 작업반이 일어설 방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대답이 없었다. 잠시후 농장원들이 이주동성으로 말하였다.

《그렇다. 내가 주인이 되고 기수가 되어 제일 무겁게 짐을 짊어지고 농장원들의 앞장에 서야 한다. 내가 걸지 않은 길, 내가 해보지 않은 일을 농장원들에게 요구할수는 없지 않나?》

다음날 작업반원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장현철동무는 누구에게나 이렇게 물었다.

《우리 작업반이 일어설 방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대답이 없었다. 잠시후 농장원들이 이주동성으로 말하였다.

《그렇다. 내가 주인이 되고 기수가 되어 제일 무겁게 짐을 짊어지고 농장원들의 앞장에 서야 한다. 내가 걸지 않은 길, 내가 해보지 않은 일을 농장원들에게 요구할수는 없지 않나?》

### 의 달리는 증대장의 전에서

여러개의 총신들이 달발을 받아 번쩍거렸다. ...

(그렇다. 내가 주인이 되고 기수가 되어 제일 무겁게 짐을 짊어지고 농장원들의 앞장에 서야 한다. 내가 걸지 않은 길, 내가 해보지 않은 일을 농장원들에게 요구할수는 없지 않나?)

다음날 작업반원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장현철동무는 누구에게나 이렇게 물었다.

《우리 작업반이 일어설 방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대답이 없었다. 잠시후 농장원들이 이주동성으로 말하였다.

《그렇다. 내가 주인이 되고 기수가 되어 제일 무겁게 짐을 짊어지고 농장원들의 앞장에 서야 한다. 내가 걸지 않은 길, 내가 해보지 않은 일을 농장원들에게 요구할수는 없지 않나?》

다음날 작업반원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장현철동무는 누구에게나 이렇게 물었다.

《우리 작업반이 일어설 방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대답이 없었다. 잠시후 농장원들이 이주동성으로 말하였다.

《그렇다. 내가 주인이 되고 기수가 되어 제일 무겁게 짐을 짊어지고 농장원들의 앞장에 서야 한다. 내가 걸지 않은 길, 내가 해보지 않은 일을 농장원들에게 요구할수는 없지 않나?》

### 의 달리는 증대장의 전에서

여러개의 총신들이 달발을 받아 번쩍거렸다. ...

(그렇다. 내가 주인이 되고 기수가 되어 제일 무겁게 짐을 짊어지고 농장원들의 앞장에 서야 한다. 내가 걸지 않은 길, 내가 해보지 않은 일을 농장원들에게 요구할수는 없지 않나?)

다음날 작업반원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장현철동무는 누구에게나 이렇게 물었다.

《우리 작업반이 일어설 방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대답이 없었다. 잠시후 농장원들이 이주동성으로 말하였다.

《그렇다. 내가 주인이 되고 기수가 되어 제일 무겁게 짐을 짊어지고 농장원들의 앞장에 서야 한다. 내가 걸지 않은 길, 내가 해보지 않은 일을 농장원들에게 요구할수는 없지 않나?》

다음날 작업반원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장현철동무는 누구에게나 이렇게 물었다.

《우리 작업반이 일어설 방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대답이 없었다. 잠시후 농장원들이 이주동성으로 말하였다.

《그렇다. 내가 주인이 되고 기수가 되어 제일 무겁게 짐을 짊어지고 농장원들의 앞장에 서야 한다. 내가 걸지 않은 길, 내가 해보지 않은 일을 농장원들에게 요구할수는 없지 않나?》

### 의 달리는 증대장의 전에서

여러개의 총신들이 달발을 받아 번쩍거렸다. ...

(그렇다. 내가 주인이 되고 기수가 되어 제일 무겁게 짐을 짊어지고 농장원들의 앞장에 서야 한다. 내가 걸지 않은 길, 내가 해보지 않은 일을 농장원들에게 요구할수는 없지 않나?)

다음날 작업반원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장현철동무는 누구에게나 이렇게 물었다.

《우리 작업반이 일어설 방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대답이 없었다. 잠시후 농장원들이 이주동성으로 말하였다.

《그렇다. 내가 주인이 되고 기수가 되어 제일 무겁게 짐을 짊어지고 농장원들의 앞장에 서야 한다. 내가 걸지 않은 길, 내가 해보지 않은 일을 농장원들에게 요구할수는 없지 않나?》

다음날 작업반원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장현철동무는 누구에게나 이렇게 물었다.

《우리 작업반이 일어설 방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대답이 없었다. 잠시후 농장원들이 이주동성으로 말하였다.

《그렇다. 내가 주인이 되고 기수가 되어 제일 무겁게 짐을 짊어지고 농장원들의 앞장에 서야 한다. 내가 걸지 않은 길, 내가 해보지 않은 일을 농장원들에게 요구할수는 없지 않나?》

### 의 달리는 증대장의 전에서

여러개의 총신들이 달발을 받아 번쩍거렸다. ...

(그렇다. 내가 주인이 되고 기수가 되어 제일 무겁게 짐을 짊어지고 농장원들의 앞장에 서야 한다. 내가 걸지 않은 길, 내가 해보지 않은 일을 농장원들에게 요구할수는 없지 않나?)

다음날 작업반원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장현철동무는 누구에게나 이렇게 물었다.

《우리 작업반이 일어설 방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대답이 없었다. 잠시후 농장원들이 이주동성으로 말하였다.

《그렇다. 내가 주인이 되고 기수가 되어 제일 무겁게 짐을 짊어지고 농장원들의 앞장에 서야 한다. 내가 걸지 않은 길, 내가 해보지 않은 일을 농장원들에게 요구할수는 없지 않나?》

다음날 작업반원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장현철동무는 누구에게나 이렇게 물었다.

《우리 작업반이 일어설 방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대답이 없었다. 잠시후 농장원들이 이주동성으로 말하였다.

《그렇다. 내가 주인이 되고 기수가 되어 제일 무겁게 짐을 짊어지고 농장원들의 앞장에 서야 한다. 내가 걸지 않은 길, 내가 해보지 않은 일을 농장원들에게 요구할수는 없지 않나?》

### 의 달리는 증대장의 전에서

여러개의 총신들이 달발을 받아 번쩍거렸다. ...

(그렇다. 내가 주인이 되고 기수가 되어 제일 무겁게 짐을 짊어지고 농장원들의 앞장에 서야 한다. 내가 걸지 않은 길, 내가 해보지 않은 일을 농장원들에게 요구할수는 없지 않나?)

다음날 작업반원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장현철동무는 누구에게나 이렇게 물었다.

《우리 작업반이 일어설 방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대답이 없었다. 잠시후 농장원들이 이주동성으로 말하였다.

《그렇다. 내가 주인이 되고 기수가 되어 제일 무겁게 짐을 짊어지고 농장원들의 앞장에 서야 한다. 내가 걸지 않은 길, 내가 해보지 않은 일을 농장원들에게 요구할수는 없지 않나?》

다음날 작업반원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장현철동무는 누구에게나 이렇게 물었다.

《우리 작업반이 일어설 방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대답이 없었다. 잠시후 농장원들이 이주동성으로 말하였다.

《그렇다. 내가 주인이 되고 기수가 되어 제일 무겁게 짐을 짊어지고 농장원들의 앞장에 서야 한다. 내가 걸지 않은 길, 내가 해보지 않은 일을 농장원들에게 요구할수는 없지 않나?》

### 의 달리는 증대장의 전에서

여러개의 총신들이 달발을 받아 번쩍거렸다. ...

(그렇다. 내가 주인이 되고 기수가 되어 제일 무겁게 짐을 짊어지고 농장원들의 앞장에 서야 한다. 내가 걸지 않은 길, 내가 해보지 않은 일을 농장원들에게 요구할수는 없지 않나?)

다음날 작업반원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장현철동무는 누구에게나 이렇게 물었다.

《우리 작업반이 일어설 방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대답이 없었다. 잠시후 농장원들이 이주동성으로 말하였다.

《그렇다. 내가 주인이 되고 기수가 되어 제일 무겁게 짐을 짊어지고 농장원들의 앞장에 서야 한다. 내가 걸지 않은 길, 내가 해보지 않은 일을 농장원들에게 요구할수는 없지 않나?》

다음날 작업반원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장현철동무는 누구에게나 이렇게 물었다.

《우리 작업반이 일어설 방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대답이 없었다. 잠시후 농장원들이 이주동성으로 말하였다.

《그렇다. 내가 주인이 되고 기수가 되어 제일 무겁게 짐을 짊어지고 농장원들의 앞장에 서야 한다. 내가 걸지 않은 길, 내가 해보지 않은 일을 농장원들에게 요구할수는 없지 않나?》

### 의 달리는 증대장의 전에서

여러개의 총신들이 달발을 받아 번쩍거렸다. ...

(그렇다. 내가 주인이 되고 기수가 되어 제일 무겁게 짐을 짊어지고 농장원들의 앞장에 서야 한다. 내가 걸지 않은 길, 내가 해보지 않은 일을 농장원들에게 요구할수는 없지 않나?)

다음날 작업반원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장현철동무는 누구에게나 이렇게 물었다.

《우리 작업반이 일어설 방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대답이 없었다. 잠시후 농장원들이 이주동성으로 말하였다.

《그렇다. 내가 주인이 되고 기수가 되어 제일 무겁게 짐을 짊어지고 농장원들의 앞장에 서야 한다. 내가 걸지 않은 길, 내가 해보지 않은 일을 농장원들에게 요구할수는 없지 않나?》

다음날 작업반원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장현철동무는 누구에게나 이렇게 물었다.

《우리 작업반이 일어설 방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대답이 없었다. 잠시후 농장원들이 이주동성으로 말하였다.

《그렇다. 내가 주인이 되고 기수가 되어 제일 무겁게 짐을 짊어지고 농장원들의 앞장에 서야 한다. 내가 걸지 않은 길, 내가 해보지 않은 일을 농장원들에게 요구할수는 없지 않나?》

### 의 달리는 증대장의 전에서

여러개의 총신들이 달발을 받아 번쩍거렸다. ...

(그렇다. 내가 주인이 되고 기수가 되어 제일 무겁게 짐을 짊어지고 농장원들의 앞장에 서야 한다. 내가 걸지 않은 길, 내가 해보지 않은 일을 농장원들에게 요구할수는 없지 않나?)

다음날 작업반원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장현철동무는 누구에게나 이렇게 물었다.

《우리 작업반이 일어설 방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대답이 없었다. 잠시후 농장원들이 이주동성으로 말하였다.

《그렇다. 내가 주인이 되고 기수가 되어 제일 무겁게 짐을 짊어지고 농장원들의 앞장에 서야 한다. 내가 걸지 않은 길, 내가 해보지 않은 일을 농장원들에게 요구할수는 없지 않나?》

다음날 작업반원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장현철동무는 누구에게나 이렇게 물었다.

《우리 작업반이 일어설 방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대답이 없었다. 잠시후 농장원들이 이주동성으로 말하였다.

《그렇다. 내가 주인이 되고 기수가 되어 제일 무겁게 짐을 짊어지고 농장원들의 앞장에 서야 한다. 내가 걸지 않은 길, 내가 해보지 않은 일을 농장원들에게 요구할수는 없지 않나?》

### 의 달리는 증대장의 전에서

여러개의 총신들이 달발을 받아 번쩍거렸다. ...

(그렇다. 내가 주인이 되고 기수가 되어 제일 무겁게 짐을 짊어지고 농장원들의 앞장에 서야 한다. 내가 걸지 않은 길, 내가 해보지 않은 일을 농장원들에게 요구할수는 없지 않나?)

다음날 작업반원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장현철동무는 누구에게나 이렇게 물었다.

《우리 작업반이 일어설 방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대답이 없었다. 잠시후 농장원들이 이주동성으로 말하였다.

《그렇다. 내가 주인이 되고 기수가 되어 제일 무겁게 짐을 짊어지고 농장원들의 앞장에 서야 한다. 내가 걸지 않은 길, 내가 해보지 않은 일을 농장원들에게 요구할수는 없지 않나?》

다음날 작업반원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장현철동무는 누구에게나 이렇게 물었다.

《우리 작업반이 일어설 방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대답이 없었다. 잠시후 농장원들이 이주동성으로 말하였다.

《그렇다. 내가 주인이 되고 기수가 되어 제일 무겁게 짐을 짊어지고 농장원들의 앞장에 서야 한다. 내가 걸지 않은 길, 내가 해보지 않은 일을 농장원들에게 요구할수는 없지 않나?》

### 의 달리는 증대장의 전에서

여러개의 총신들이 달발을 받아 번쩍거렸다. ...

(그렇다. 내가 주인이 되고 기수가 되어 제일 무겁게 짐을 짊어지고 농장원들의 앞장에 서야 한다. 내가 걸지 않은 길, 내가 해보지 않은 일을 농장원들에게 요구할수는 없지 않나?)

다음날 작업반원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장현철동무는 누구에게나 이렇게 물었다.

《우리 작업반이 일어설 방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대답이 없었다. 잠시후 농장원들이 이주동성으로 말하였다.

《그렇다. 내가 주인이 되고 기수가 되어 제일 무겁게 짐을 짊어지고 농장원들의 앞장에 서야 한다. 내가 걸지 않은 길, 내가 해보지 않은 일을 농장원들에게 요구할수는 없지 않나?》

다음날 작업반원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장현철동무는 누구에게나 이렇게 물었다.

《우리 작업반이 일어설 방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대답이 없었다. 잠시후 농장원들이 이주동성으로 말하였다.

《그렇다. 내가 주인이 되고 기수가 되어 제일 무겁게 짐을 짊어지고 농장원들의 앞장에 서야 한다. 내가 걸지 않은 길, 내가 해보지 않은 일을 농장원들에게 요구할수는 없지 않나?》

### 의 달리는 증대장의 전에서

여러개의 총신들이 달발을 받아 번쩍거렸다. ...

(그렇다. 내가 주인이 되고 기수가 되어 제일 무겁게 짐을 짊어지고 농장원들의 앞장에 서야 한다. 내가 걸지 않은 길, 내가 해보지 않은 일을 농장원들에게 요구할수는 없지 않나?)

다음날 작업반원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장현철동무는 누구에게나 이렇게 물었다.

《우리 작업반이 일어설 방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대답이 없었다. 잠시후 농장원들이 이주동성으로 말하였다.

《그렇다. 내가 주인이 되고 기수가 되어 제일 무겁게 짐을 짊어지고 농장원들의 앞장에 서야 한다. 내가 걸지 않은 길, 내가 해보지 않은 일을 농장원들에게 요구할수는 없지 않나?》

다음날 작업반원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장현철동무는 누구에게나 이렇게 물었다.

《우리 작업반이 일어설 방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대답이 없었다. 잠시후 농장원들이 이주동성으로 말하였다.

《그렇다. 내가 주인이 되고 기수가 되어 제일 무겁게 짐을 짊어지고 농장원들의 앞장에 서야 한다. 내가 걸지 않은 길, 내가 해보지 않은 일을 농장원들에게 요구할수는 없지 않나?》

### 의 달리는 증대장의 전에서

여러개의 총신들이 달발을 받아 번쩍거렸다. ...

(그렇다. 내가 주인이 되고 기수가 되어 제일 무겁게 짐을 짊어지고 농장원들의 앞장에 서야 한다. 내가 걸지 않은 길, 내가 해보지 않은 일을 농장원들에게 요구할수는 없지 않나?)

다음날 작업반원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장현철동무는 누구에게나 이렇게 물었다.

《우리 작업반이 일어설 방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대답이 없었다. 잠시후 농장원들이 이주동성으로 말하였다.

《그렇다. 내가 주인이 되고 기수가 되어 제일 무겁게 짐을 짊어지고 농장원들의 앞장에 서야 한다. 내가 걸지 않은 길, 내가 해보지 않은 일을 농장원들에게 요구할수는 없지 않나?》

다음날 작업반원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장현철동무는 누구에게나 이렇게 물었다.

《우리 작업반이 일어설 방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대답이 없었다. 잠시후 농장원들이 이주동성으로 말하였다.

《그렇다. 내가 주인이 되고 기수가 되어 제일 무겁게 짐을 짊어지고 농장원들의 앞장에 서야 한다. 내가 걸지 않은 길, 내가 해보지 않은 일을 농장원들에게 요구할수는 없지 않나?》

### 의 달리는 증대장의 전에서

여러개의 총신들이 달발을 받아 번쩍거렸다. ...

(그렇다. 내가 주인이 되고 기수가 되어 제일 무겁게 짐을 짊어지고 농장원들의 앞장에 서야 한다. 내가 걸지 않은 길, 내가 해보지 않은 일을 농장원들에게 요구할수는 없지 않나?)

다음날 작업반원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장현철동무는 누구에게나 이렇게 물었다.

《우리 작업반이 일어설 방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대답이 없었다. 잠시후 농장원들이 이주동성으로 말하였다.

《그렇다. 내가 주인이 되고 기수가 되어 제일 무겁게 짐을 짊어지고 농장원들의 앞장에 서야 한다. 내가 걸지 않은 길, 내가 해보지 않은 일을 농장원들에게 요구할수는 없지 않나?》

다음날 작업반원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장현철동무는 누구에게나 이렇게 물었다.

《우리 작업반이 일어설 방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대답이 없었다. 잠시후 농장원들이 이주동성으로 말하였다.

《그렇다. 내가 주인이 되고 기수가 되어 제일 무겁게 짐을 짊어지고 농장원들의 앞장에 서야 한다. 내가 걸지 않은 길, 내가 해보지 않은 일을 농장원들에게 요구할수는 없지 않나?》

### 의 달리는 증대장의 전에서

여러개의 총신들이 달발을 받아 번쩍거렸다. ...

(그렇다. 내가 주인이 되고 기수가 되어 제일 무겁게 짐을 짊어지고 농장원들의 앞장에 서야 한다. 내가 걸지 않은 길, 내가 해보지 않은 일을 농장원들에게 요구



